

충북학누리

SUMMER | 2025 VOL. 19

충주시 수룡폭포



충북학연구소
Chungbuk Studies Institute

2025년 제27집

『충북학』 원고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지역학으로서 가치 있는 자료를 발굴, 연구하기 위해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충북학』 제27집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사상, 문화, 사회, 예술, 역사 등을 다룬 글을 보내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충북학』 제27집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원고 내용 충청북도의 사상, 문화, 사회, 예술, 역사 등 전 분야

분야	분량
논문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비논문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모집 기간 2025년 4월 1일 ~ 9월 30일

제출 방법 이메일

cbc9236@cri.re.kr

문의: 043-220-1161~3

* 원고는 한글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목차

SUMMER 2025
Vol.19

- 5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
기억의 힘과 품-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위하여 | 김호진
- 22 **충북의 방언**
충북 방언의 지리적 분포와 하위 방언권 | 박경래
- 38 **충북 건축 이야기**
불교문화의 회랑지대, 하늘재와 충주 미륵대원지 | 김형래
- 48 **충북 역사 기행**
연원도(連原道) 따라가기 · 6 | 김희찬
- 59 **문화유산 활용 현장**
신항서원 휴식식識시대의 힘, 다섯 | 김해숙
- 69 **충북학연구소 소식**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총괄 임기현

기획·편집 최병철, 정민, 안현진

통권 19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5. 6. 30.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01.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

기억의 힘과 품-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위하여

김호진(충북대학교 강사)

들어가며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가의 활동뿐만 아니라 친일 등 혐결 여부를 조사하여 독립운동에 공적이 인정되는 인물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때,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심사하여 훈격에 따라 차등 서훈하고 있다. 훈격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비롯해 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 등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대통령표창이 있다. 이번 편에서는 가장 낮은 훈격인 건국포장·대통령표창의 독립유공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 등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학계에서 연구하거나 출신지의 지자체에서 선양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 주목하여 대중에 소개된 적도 종종 있다. 이에 비해 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대중의 관심을 덜 받는 편이다. 광복 80주년에 대한 진정한 기념은 더 많은 이들의 '위국헌신(爲國獻身)'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글에서는 충북 출신으로 건국포장·대통령표창에 서훈된 독립유공자에 주목하였다.

연번	훈격	인원(명)
1	애족장	235
2	대통령표창	150
3	애국장	134
4	독립장	34
5	건국포장	32
6	대통령장	6
합계		591

충북 출신으로 건국포장·대통령표창에 서훈된 독립유공자는 총 182명이다(2025년 6월 현재).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총인원 591명 가운데 30.7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건국포장을 받은 인물은 32명이고,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은 150명이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은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전체 인원 중 두 번째로 많은데, 235명인 애족장 다음으로 많다. 그런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기대된다. 건국포장은 대통령장보다 많다. 밑에서 두 번째 순위이며, 애족장·대통령표창·애국장·독립장의 다음 순위이다. 인원수가 적은 만큼 밀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에 본적을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에 대한민국장은 없다.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손병희는 우리 지역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훈록에는 본적이 서울로 되어 있으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에 그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훈격의 독립유공자 분석

건국포장을 받은 32명을 운동계열별, 본적별, 포상연도별로 살펴보겠다. 먼저, 운동계열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운동계열	3·1운동	의병	국내 항일	미주	학생 운동	인도네시아	중국	총합
인원	12	9	5	2	2	1	1	32

운동계열 중 '3·1운동'은 '거국적·거족적' 독립운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다. 의병 역시 충북 기준 및 전국 기준의 통계가 상위권에 위치한 것과 동일하게 상위권에 있다.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중 운동계열이 의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전체의 28.5%로 2위이다. 전국 기준의 독립유공자 중 의병으로 운동계열이 분류된 경우는 15%로 3위이다. 건국포장에 추서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중에 의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28.1%로 2위이다. 구한말 의병들은 을미의병 때부터 시작하여 20년 넘게 대일전쟁을 수행하였다. 많은 이들이 의병전쟁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전사하였다.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충북 단위 및 충북 출신 건국포장의 운동계열 통계는 이러한 부분이 투영된 결과이다.

운동계열 중 3·1운동과 의병이 인원수가 많은 것은 본적별 통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적별 통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본적	청주	충주	괴산	제천	보은	영동	음성	진천	단양	옥천	총합
인원	6	6	5	4	3	2	2	2	1	1	32

청주와 충주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고, 괴산이 5명으로 두 번째 많다. 그리고 제천(4), 보은(3)이 그 다음 순서이며, 영동·음성·진천이 각각 2명, 단양·옥천이 각각 1명으로 하위 순위에 있다. 청주는 6명 중 3명이 3·1운동 참여자이며, 1명이 의병 참여자이다. 괴산은 5명 중 2명이 3·1운동, 1명이 의병 참여자이다. 충주는 6명 중 2명이 3·1운동 참여자이며, 보은은 3명 중 2명이 의병 참여자이다. 제천의 경우, 총인원 4명 전부다 의병과 3·1운동 참여자로 특히 주목된다.

다음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를 포상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충북에서 건국포장 독립유공자를 처음으로 배출한 해는 1993년이다. 이후 1995년, 1997년, 2002~3년, 2005~6년, 2008년, 2010~13년, 2015년, 2018~19년, 2021~22년, 2024년까지 비교적 꾸준히 건국포장 독립유공자가 배출되었다. 해마다 1~2명이 배출되고 있는데, 유의미한 해는 1995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과 2021년이다. 1995년과 2015년은 각각 4명이 건국포장을 받았고, 2019년은 3명, 2021년은 4명이 건국포장을 받았다. 전자는 광복 50주년과 70주년이라는 계기가 포상 인원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5년에는 1,434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 전년 대비 55배 이상 많았고 후년 대비 6배 많았다. 후자는 2018년부터 포상 기준이 완화된 결과이다.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포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포상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대통령표창도 건국포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에게 대통령표창이 처음 서훈된 해는 1982년이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2년까지 대통령표창을 받은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는 없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표창에 서훈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가 꾸준히 나왔다. 1993년, 1995~7년, 2000년, 2002년, 2004~24년에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에게 대통령표창이 서훈되었다. 특히,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가 대통령표창에 서훈되었다.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가 대통령표창을 받은 시기 중 유의미한 해는 1992년(23명), 1995년(10명), 2005년(10명), 2008년(10명)이며, 각각 9명, 4명, 16명이 포상을 받은 2019~2021년도 의미 있는 해이다.

1995년, 2005년 및 2019~2021년은 앞서 건국포장의 사례와 동일한 이유로 보인다. 광복 50주년 및 60주년의 영향이며, 2018년 포상 기준 완화의 영향인 것이다. 1992년과 2008년이 주목되는데, 1992년의 괄목할 성과는 198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70주년을 기념하여 포상 기준이 완화된 여파로 짐작된다. 2008년은 전체 10명 중 절대 다수인 9명이 3·1운동 참여자이다. 3·1운동 90주년을 앞두고 포상 인원을 늘리고자 한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대통령표창도 운동계열별, 본적별로 분석해보겠다. 먼저, 운동계열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운동계열	3·1운동	국내 항일	학생 운동	의병	만주	미주	광복군	일본	총합
인원	102	15	15	11	3	2	1	1	150

3·1운동에 참여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가 102명으로, 건국포장과 동일하게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다음 순위는 건국포장과 차이가 있다. 의병이 아니라 국내항일과 학생운동이다. 국내와 일본에서 비밀결사·동맹휴학 등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이들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 인원이 많은 운동계열은 의병인데, 그 다음 순위인 만주방면보다 8명 많고 의병의 앞 순위인 국내항일·학생운동보다 4명 적다. 건국포장과 마찬가지로 상위권에 속하는 운동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표창도 건국포장처럼 운동계열별 통계가 본적별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본적별 통계는 아래와 같다.

본적	괴산	음성	청주	보은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영동	단양	미상	총합
인원	26	26	25	16	16	12	10	8	6	4	1	150

괴산과 음성의 포상 인원이 가장 많고, 청주가 두 번째, 보은과 충주가 세 번째로 많다. 그 다음으로 제천, 옥천, 진천, 영동, 단양 순으로 포상 인원이 많다. 괴산은 26명 중 20명이 3·1운동, 3명이 국내항일로 분류되며, 음성은 26명 중 23명이 3·1운동, 2명이 학생운동, 1명이 의병으로 분류된다. 청주는 25명 중 15명이 3·1운동, 6명이 학생운동, 3명이 국내항일로 분류된다. 보은과 충주는 16명 중 9명과 10명이 3·1운동 참여자이고, 옥천은 10명 중 8명이 3·1운동 참여자이다. 제천은 3·1운동 참여자 4명, 의병 4명, 국내항일 2명, 미주 2명으로 분류되는데, ‘호좌의진’의 근거지라는 명성대로 의병의 비율이 높다.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들

충북 출신으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소개하기 위해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182명을 모두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름 하나하나를 전부 언급하고 그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다. 활동의 경우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다. 더불어 182명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독립유공자를 운동계열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운동 계열	3·1운동	국내 항일	학생 운동	의병	만주	미주	광복군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총합
인원	114	20	17	20	3	4	1	1	1	1	182

① 3·1운동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을 통틀어 인원수가 가장 많은 운동계열은 3·1운동이다. 가나다 순으로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음성·제천·진천·청주·충주 등 충북 전 지역에서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에 서훈된 독립유공자가 확인된다. 이들은 대부분 본인의 출신지에서 3·1운동에 참여했는데, 간혹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된다. 여기서는 114명의 3·1운동 참여자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그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충북지역 만세운동의 신호탄 역할을 한 괴산은 괴산읍과 장연·청안·청천 등의 면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괴산 출신 인물들은 대부분 소수·연풍·장연·청안·청천·칠성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이들이다. 그 중 소수면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송능식(宋能植)이다. 그는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일경에 붙잡혀 징역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연풍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박봉석(朴奉石)·조세기(趙世基)이다. 이들은 연풍면에 있는 보통학교 앞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이로 인해 일경에 붙잡혀 태(笞) 90도를 받았다. 장연면은 4월 1일과 2일에 걸쳐 200여 명의 사람들이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한 곳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장연면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도 많다. 김일곤(金日坤)·박석업(朴錫業)·양신집(梁信集)·정해문(鄭海文)·조규학(曹圭鶴)·지도원(池道元)·홍윤식(洪倫植)·황만모(黃萬模) 등이다. 이들

대부분이 옥고를 치렀다.



연부산

칠성면은 쌍곡리 만세시위가 알려져 있는데, 이에 참여한 인물로 김동억(金東億)이 있다. 쌍곡리에 살고 있던 그는 ‘괴산시장에서 돌아오던 주민 14~15명’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지나가자 이에 동참하였고, 일경에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았다.

보은은 영동·옥천 등 주변 지역에서 전개된 격렬한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4월 초부터 만세시위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4월 13일까지 시위가 지속되었다. 이 가운데 내북·수한·탄부 등의 지역에 참여한 이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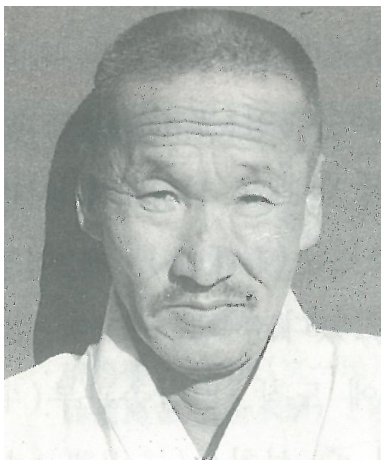


김용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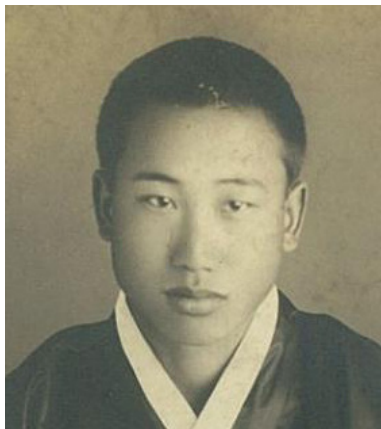
이준영

확인된다. 구열조(具悅祖)와 이용기(李龍基)는 내북면에서 독립만세를 불렀고, 송덕빈(宋德彬)·안만순(安萬淳)·최용문(崔容門) 등은 수한면 농암산에서 전개된 봉화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김용섭(金用燮)·이인하(李寅夏)·이준영(李準永)은 탄부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는데, 구인리와 길상리의 뒷산에서 전개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광교

옥천도 영동만큼이나 격렬한 만세시위로 유명한 지역이다. 군서·이원·청산 등의 면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 이원면은 충북지역에서 ‘폭행 시위의 효시(嚆矢)’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원면 출신



박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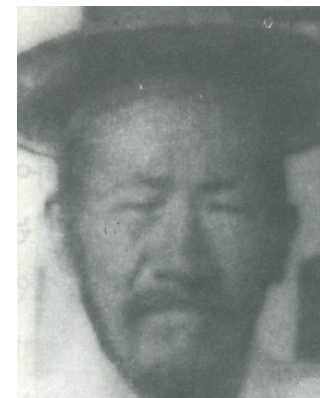
손일만

박만하(朴萬夏)가 이원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산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로는 김지수(金芝洙)·김홍(金洪)·손일만(孫一萬)·신업이(申業伊)·안대봉(安大鳳)·박동희(朴東義)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태형(笞刑)이라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즉결처분을 받았다. 그중 박동희는 태형을 받고 한 달여 만인 5월 6일 장독(杖毒)으로 순국하였다. 그는 순국 99주년 만에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표창에 서훈되었다.

음성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거의 매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음성시장을 비롯해 감곡·대소·맹동·소이·원남 등에서 3·1운동이 전개되었다. 음성시장의 만세시위에 참여한 인물은 김영익(金榮翼)·정대영(鄭大永)·정민영(鄭旼永)·최만득(崔萬得)이다. 이들은 일정에 붙잡혀 태 90도부터 징역 4월까지 고초를

영동은 서산(鋤山)경찰주재소를 습격한 학산면 만세시위 등 격렬한 만세운동이 전개된 지역이다. 장인득(張寅得)·장출봉(張出鳳)·전재득(全在得)·한광교(韓光敎) 등이 영동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장인득·한광교는 영동 시장에서 2,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장출봉은 추풍령의 일본 헌병에 체포된 동지 3명을 구출하고자 하였고, 전재득은 학산면 서산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겪었다. 감곡의 응봉산에서 독립만세를 부른 송석봉(宋錫奉)도 있다. 그는 면서기에게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맹동면에서는 강구원(姜龜遠)·강대길(姜大吉)·김해룡(金海龍)·김화서(金化西)·백순규(白順奎)·임용근(林龍根) 등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송인식

보천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서정오(徐廷五)·이교설(李敎高)·장일귀(張日貴)가 이에 참여하여 태 90도를 받았다.



권종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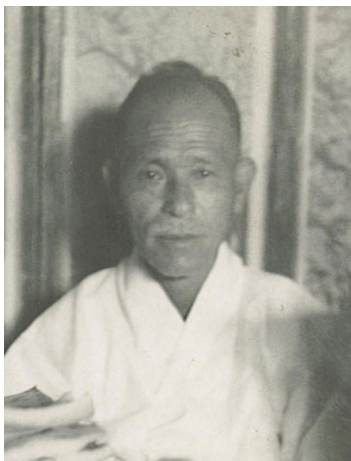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대소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례는 김달년(金達年)·민병철(閔丙哲)·박병철(朴炳喆)·박영록(朴永綠)·박제성(朴濟成)·송인식(宋寅植)·이용학(李容學)·임백규(林白圭)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역시 다른 이들처럼 태형부터 징역형까지 갖은 고초를 겪었다. 소이면 한천시장에서는 1,000여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는 등 만세운동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는데, 김순길(金順吉)·추성렬(秋成烈)이 이에 참여하였다. 원남면은

제천은 4월 17일 제천시장에서, 18일 송학면사무소 앞에서 3·1운동이 전개되었다. 제천시장의 만세시위에 참여한 인물은 권종필(權鍾弼)·이기하(李起夏)·원세덕(元世德)·장용근(張用根)·전필현(全弼鉉)이고, 송학면사무소 앞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한 인물은 최종률(崔鍾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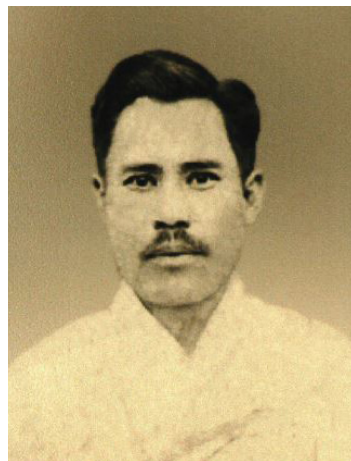
진천은 이월면과 만승면의 만세운동뿐만 아니라 백곡면 석현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도 있는데, 만승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로는 남계홍(南啓弘)·백선옥(白先玉)·신달용(申達用)·이영호(李榮鎬) 등이 있으며, 백곡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로는 오성문(吳聖文)과 이종하(李鍾夏)가 있다.

청주는 3월 23일 강내면 태성리에서 조동식 등이 전개한 봉화만세시위가 첫 번째 3·1운동인데, 손병희·권병덕·신석구·신흥식 등 민족대표를 배출한 지역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에 서훈된 이들 중에 청주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24명인데, 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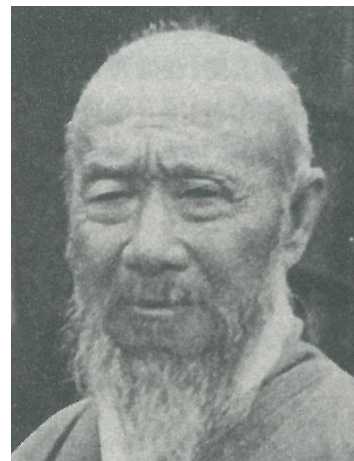
강서·낭성·미원·북이·북일 등의 면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김정환



이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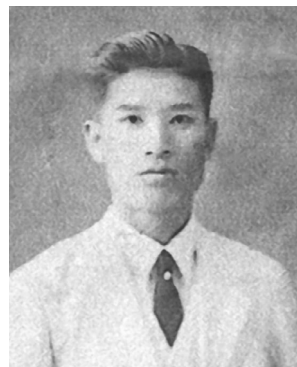


임봉수

강서면과 낭성면에서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한 인물은 신광균(申光均)과 이상옥(李相玉)이다. 이들은 각각 강서면과 낭성면에서 독립을 호소하는 문서를 제작·배포하는 일에 관여하였다. 미원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서정렬(徐正烈)·신정식(申鼎植)·신성휴(申聖休)·이서구(李瑞九)·최봉원(崔鳳源)이 있다. 특히, 최봉원은 미원면 만세시위의 주도자 신경구가 체포되자 그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주재소를 습격하고 사람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북이면은 신대리 앞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행진한 김정환(金貞煥)·이시우(李始雨)·장성이(張星伊) 등이 있고, 북일면은 우산리 뒷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변영봉(卞榮鳳)·송태현(宋台鉉)·신석범(申錫範)과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통고문을 배포한 박제우(朴齊宇)가 있다. 또한, 의병장이었던 한봉수가 주도한 세교리 만세운동에 동참한 임봉수(林鳳洙)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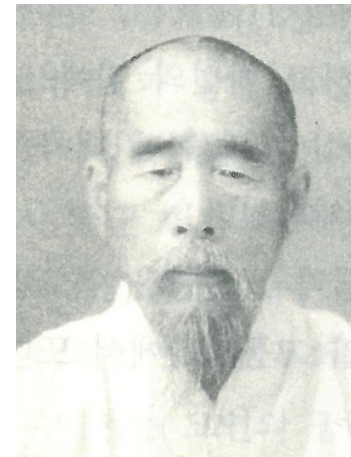
신태동



이수천

한편, 경성사립중앙학교 학생이었던 신영호가 고향인 청주로 돌아와 3월 9일 청주공립농업학교 학생 등과 만세운동을 계획했는데, 일제에 포착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참여한 이들 중에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에 서훈된 이들이 있는데, 박승하(朴勝夏)·이요습(李要習)·양재성(楊在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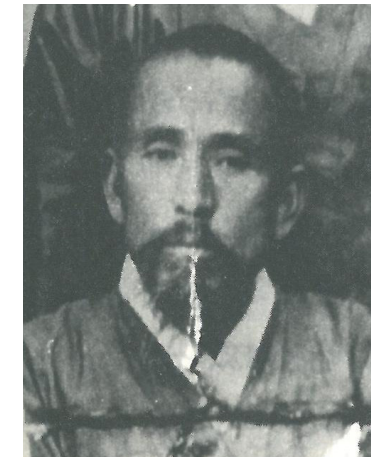
신태동(申泰東) 및 이수천(李壽千)·오성환(吳成煥)·정해원(鄭海元)·김흥배(金興培)·정유흥(鄭有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은배



오언영



윤무영

충주는 신니면 용원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이 대표적이나, 그 외에도 간이농업학교 및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시위 계획과 4월 8일 충주장날을 계기로 추진된 만세시위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신니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김은배(金殷倍)·윤무영(尹務榮)·윤복영(尹福榮)·윤주영(尹周榮)·이강렴(李康濂)·이강호(李康濤)·이희갑(李喜甲) 등이 있고, 충주시장을 이용한 만세시위 계획에 참여한 인물로는 오언영(吳彦泳)·최명희(崔明熾)·장양헌(張良憲) 등이 있다. 또한, 간이농업학교 및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시위 계획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는 유자명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유흥식이 있다.



김종옥

마지막으로 단양의 경우는 3월 4일부터 3일 동안 만세시위가 있었다는 회고담이 있으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에 서훈된 충북 출신 인물 중에도 단양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단양 출신으로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방재구(方在矩)가 있다. 그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중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괴산 출신 김종옥(金鍾玉)과 이문규(李文圭)도 있다. 이들은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출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례에는 정화순(鄭化順)과 남상은(南相殷)도 있다. 옥천 출신의 정화순은 충남 공주에서, 제천 출신 남상은은 강원도 영월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② 의병

의병전쟁에 참여하여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들은 참여한 의진을 토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유인석·원용팔·이강년 및 김운로·노병대·윤용구·정낙인·정해창 등의 의병장과 더불어 해산군인이라는 키워드로 구분이 가능하다.



윤응선



윤정학



이종국

먼저, 유인석 휘하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한 인물은 송은헌(宋殷憲)·신광묵(辛光默)·윤병의(尹秉義)·윤응선(尹膺善)·윤정학(尹正學)·이승구(李承龜)·이종국(李鍾國)이 있다. 이들 중에 신광묵은 1907년 이강년의 의진에 참여했으며, 이승구는 1908년 이강년의 제문을 지었다. 원용팔 휘하에서 의병으로 활약한 인물은 김목여(金木汝)가 있다. 원용팔이 체포된 뒤에는 박갑주 의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강년 의진에 참여한 인물은 정중택(鄭仲澤)·박득용(朴得用)·허준여(許俊汝)·황경문(黃敬文)이 있다. 이 가운데 황경문은 이후 채정청 의진에서 참여한 이력도 확인된다. 그런데 원용팔과 이강년은 유인석의 휘하에서 요직에 있던 의병장들이다. 원용팔 휘하에 있던 김목여뿐만 아니라 이강년 휘하에 있던 정중택·박득용·허준여·황경문도 큰 의미에서는 유인석 의진에 영향을 받은 의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산 군인 출신은 김영근(金永根)·김천복(金千福)이 있다. 이들은 대한제국 근위대 출신으로, 군대 해산 이후

의병전쟁에 뛰어들고자 했으나 체포되어 유형(流刑) 5년을 받았다. 그리고 유진옥(柳鎭玉)은 정해창 의진에 참여하여 현재 단양에 속한 영춘(永春)과 강원도 영월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맹선섭(孟宣燮)과 이상곤(李相坤)은 의병장 김운로가 1914년 보은에서 의병을 다시 일으키려고 할 때 참여하여 동지를 모집하는 등 의병 재기에 노력하였다. 김경백(金敬伯)은 노병대 의진에 참여하고 군수품 모집 등의 활동을 펼쳤고, 이창손(李昌孫)은 1908년 정낙인 의진에 참여했다가 일본군의 총에 맞고 체포되었다. 끝으로 장팔용(蔣八龍)은 1909년 경북에서 윤용구 의진에 참여했고, 일본헌병대와 교전하는 등의 활약을 하였다.

③ 국내항일

국내항일은 1945년 8월 15일까지 국내에서 전개된 다양한 운동 양상을 포괄하는 운동계열이다. 그러다 보니 이에 속하는 독립유공자를 활동 시기나 운동 양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충북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고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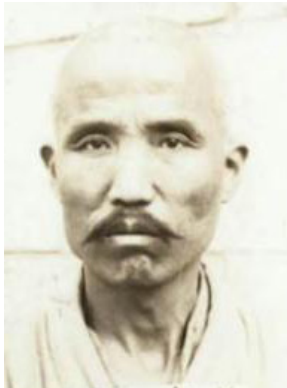
충북에서 활동한 이들 중에 1910년대에 활동한 인물로는 김성환(金成煥)·안성렬(安聖烈)·현만협(玄萬協)이 있다. 김성환은 청주에서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호적입적·납세·측량 등을 거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성렬은 1915년 8월 비밀리에 국권회복 방안을 논의하였고, 현만협은 1919년 충주의 천도교인들에게 기부금을 모집하여 독립운동자금으로 지원하였다.

1920년대에 활동한 인물은 김용응(金鏞應)·유궁렬(柳兢烈)·전두환(全斗煥)·정구석(鄭求奭)·정방모(鄭邦模)가 있다. 김용응은 1925년 조선사회운동자동맹 발기준비위원, 1927년 신간회 괴산지회 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유궁렬은 1921년 옥천에서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한국 독립을 기원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전두환은 1920년 옥천 청성면에서



정구석

산림이 면(面)의 재산권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항거하였다. 정구석과 정방모는 1920년 9월 보은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시위 계획을 추진하였다.



류재영



이인국

1930년대에 활동한 인물은 류재영(柳在英)과 류필열(柳弼烈)이 있다. 류재영은 1936년 9월 옥천에서 일제의 침략을 비판하였고, 류필열은 1932년 청주의 낭성공립보통학교의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신사상과 계급의식을 가르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1940년대는 이인국(李仁國)의 활동이 확인된

다. 그는 1942년 청주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체포되었다.



민영로



박봉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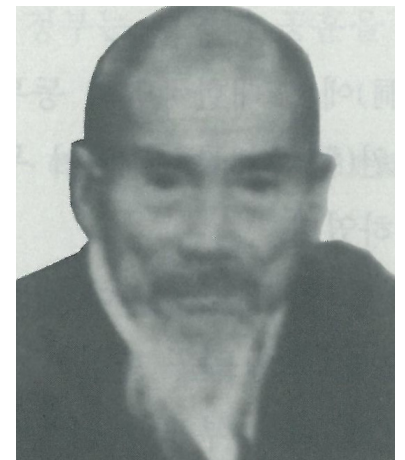
이태훈

충북 이외의 지역에는 서울·대전·충남·경북·전북이 있다. 서울에서는 이주면(李柱冕)이 1919년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태훈(李泰薰)이 1921년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영로(閔泳魯)는 1939년 조선학생동지회 조직하고 독립선언과 학생봉기를 계획하였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다음의 이야기도 전한다. 1944년 일본군으로 미얀마 전선에 있다가 탈출했고, 이후 연합군에 가담하여 활동했는데 피살당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청주 출신의 박봉래는 1915년 신한혁명당에서 파견한 성낙형 등과 접촉하여 고종을 중국으로 망명시키는 계획에 참여하였다.

대전에서는 원종응(元鍾應)이 1932년 충남전위동맹, 비밀 결사 적색소년동맹 조직 등의 활동을 전개 하였다. 경북에서는 최봉기(崔瑋基)가 1919년 10월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위한 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



김희영



최봉기

였고, 유재찬(柳在贊)이 1922년 11월 비밀결사 의용단 경북지단에 가입하여 재무국 서기로 활동하였다. 충남에서는 이하익(李夏翼)이 1935년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황국교에 입교하여 신도모집 활동을 전개하였고, 전북에서는 김희영(金熙暎)이 1924년 동지들과 민중운동동맹을 결성하였다.

④ 만주 방면

만주 일대에서 활약한 인물로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은 연병환(延秉煥)·원응장(元應章)·홍태식(洪台植)이 있다. 연병환은 1919년 독립운동가 후원 활동, 1920년 대한인거류민단 단원 등의 활약상이 확인된다. 원응장은 1925년 정의부 환서검무감, 환남검무감 등을 역임했고, 홍태식은 1925년 고려공산청년회 비서부 선전책임, 1928년 조선공산당 하얼빈 및 장춘구 책임 등을 역임하였다. 홍태식은 괴산 출신으로 고향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연병환은 다른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그의 독립운동은 동생과 딸, 그리고 사위와 외손녀로 계승되기 때문이다. 그의 동생 연병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서 활약한 공로가 인정되어 독립장에 추서되었고, 그의 딸 연미당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여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사위 엄항섭은 임시의정원 의원, 한국교민단 의경대장, 임시정부 선전부장 및 주석판공비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백범 김구의 최측근 인사로 유명하다. 외손녀 엄기선도 부모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건국포장을 받았다. 연병환은 '형에서 동생으로, 아버지에서 딸로' 독립운동이 이어지는 실증적인 사례인 것이다.

⑤ 미주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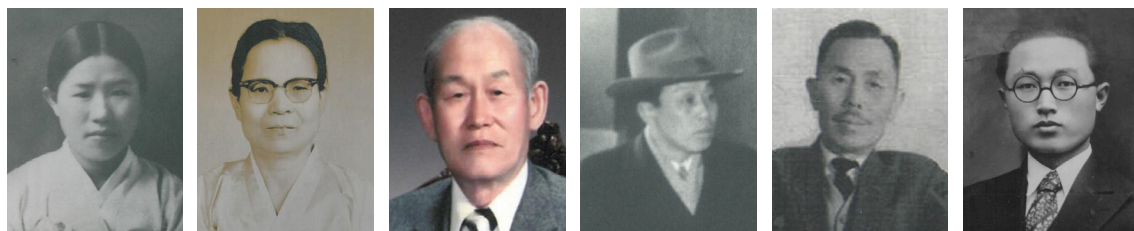


이명원

미주 방면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중에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은 김상준(金相俊)·김천문(金千文)·양희룡(梁熙龍)·이명원(李明源)이 있다. 이들은 멕시코의 메리다를 무대로 활동했고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상준 1910년 대한인국민회 멕시코 메리다지방회에 가입하여 활동했고, 이후 대한인국민회 쿠바 카르테나스 지방회 법무 등을 역임하였다. 김천문은 1910년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1919년 메리다지방회 작둔지방 경찰소 법무담당 등을 역임하였다. 양희룡은 1930~40년대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외교원, 메리다청년회 법무원, 메리다지방회 총무, 메리다지방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명원은 1910년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총무, 1913년 메리다지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⑥ 학생운동

학생운동이라는 운동계열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독립운동은 단연 광주학생독립운동이다.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중에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는 동조시위를 전개한 인물이 다수 확인된다. 먼저 이들을 살펴보고 충북 및 다른 지역에서 학생운동을 전개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민금봉

민인숙

이인찬

이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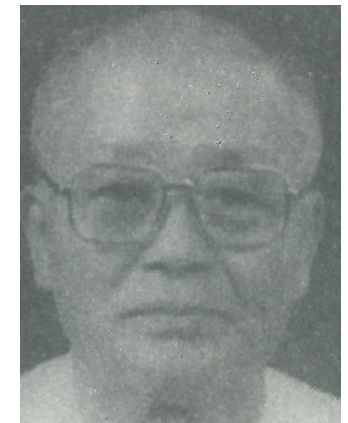
임동묵

정인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한 인물은 김찬호(金燦鎬)·민금봉(閔今奉)·민인숙(閔仁淑)·박우양(朴遇陽)·손명희(孫明熙)·양병갑(梁炳鉉)·이완모(李完模)·이인찬(李仁燦)·이일신(

李一信)·임동묵(林東默)·정인근(鄭仁根)·홍금자(洪金子)이다. 1930년 1월 청주공립농업학교 학생 김찬호·양병갑·이완모·임동묵,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 박우양·이인찬, 충북공립농업학교 학생 손명희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민금봉, 근화여학교 학생 민인숙, 중동학교 학생 이일신·정인근, 태화여학교 학생 홍금자가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조시위를 전개하였다. 특히, 이일신은 교단에 올라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제국주의 교육을 배척하는 싸움에 분기하라'는 내용의 격문을 낭독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에 호응하여 동맹 휴교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 밖에도 1927년 충북 청주에서는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다니던 엄재록(嚴在祿)·정진섭(鄭鎭燮) 등 3학년 학생들이 일본인 교장의 민족차별적 발언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는 권태응(權泰應)이 1935년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를 다니며 비밀조직 UTR구락부에 참여하였고, 안병구(安秉九)가 1940년 조선문화학원을 다니며 민족의식을 일으키는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경북에서는 성축용(成丑鑄)이 1941년 대구사범학교를 다니며 비밀결사 '문예부'에서 활동하였다.



안병구

⑦ 그 외 운동계열



신창희



임병철

그 밖에도 광복군 및 중국·일본·인도네시아 방면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있다. 광복군의 이태순(李泰順), 중국 방면의 신창희(申昌喜), 일본 방면의 임병철(林炳喆), 인도네시아 방면의 임헌근(林憲根)이 그러하다. 이태순은 1945년 2월 광복군 제1지대에 입대하였다. 신창희는 1921년부터 남편 민필호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1943년부터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임병철은 1941년

와세다[早稻田]고등공학교를 다니며 민족의식을 키우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임헌근은 1944년 일본군 군속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독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려독립청년당을 조직하고 총무로 활동하였다.

이 중에 신창희를 주목해야 한다. 그는 신명호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한 예관 신규식의 딸이다. 신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자리 잡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로, 임시정부에서 법무총장·외무총장·국무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신창희는 부친 신규식이 1922년 서거한 뒤에도 남편 민필호와 함께 부친의 유지를 이어 나갔다. 게다가 그의 딸 민영주뿐만 아니라 사위 김준엽까지 광복군에 들어가 활약하였다.

마치며

이번 편에서는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중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들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182명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는 동시에, 간략하게나마 활동도 소개하였다. 그러다보니 단순 열거식이 되어 독자들이 읽기에 지루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 단순 열거의 지루함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들어가며’에서 밝혔듯이, 광복 80주년에 대한 진정한 기념은 더 많은 이들의 ‘위국헌신(爲國獻身)’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순 열거를 고집한 것에 대한 독자의 넓은 아량과 양해를 구한다.

오늘 살펴본 182명 중에는 필자가 예전부터 애잔한 마음을 가졌던 인물도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신창희 즉, 신명호이다. 그의 부친 신규식은 1922년 서거한 이후 1993년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상하이 만국공묘에 안장되어 있었다. 유일한 남동생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현재는 1945년 서거한 모친 조정완의 옆에 안장되어 있다. 신명호는 1979년에, 임시정부에서 광복군 총사령부의 주계장(主計長) 등을 지낸 조경한에게 글을 부탁하여 어머니를 모신 곳에 부모님의 비석을 세웠다. 그 비석에 새겨진 ‘불초고녀(不肖孤女) 명호(明浩)’가 ‘읍혈(泣血) 근수(謹啓)하다’는 표현이 진정으로 와 닿았다. 필자가 알지 못할 뿐, 다른 독립운동가의 유족 중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신명호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들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고자 한다. 

02. 충북의 방언

충북 방언의 지리적 분포와 하위 방언

박경래(세명대학교 명예교수)

1. 글을 시작하면서

이번 글은 “충북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반영된 충북 방언”이라는 큰 주제 아래 쓰인 두 번째 연재물이다. 첫 번째 글에서는 충북 사람들의 말에는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 방언을 이해하려면 충북 사람들이 살아온 충북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충북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는 기본적으로 지표에서의 인간 활동에 의한 모든 현상을 자연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나아가 그 현상의 지역적 특성 및 법칙을 연구하는 인문지리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북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언어에 반영된 결과가 충북 방언이므로 충북 방언을 충북의 지도에 나타내면 충북 방언의 지리적 분포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충북 방언의 지리적인 분포와 특징을 전국적인 분포와 함께 살펴본다면 충북 방언의 특징과 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충북의 지리적인 특징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충북 방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몇몇 어휘의 방언 분화 양상을 지도에 표시해봄으로써 충북 방언의 지리적인 분포와 하위 방언권의 구획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충북의 지리적인 특징과 충북 방언

충북의 언어분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지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충북은 남한의 중앙에 위치하고 바다에 접하지 않은 내륙도로서 동쪽은 소백산맥의 주능선을 경계로 경상북도의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에 접하고, 서쪽은 충남 천안시, 세종시, 대전시에 접하고 있다. 남쪽은 전북 무주군 및 경북 김천시와 접하고, 북쪽은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와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에

접하고 있다.

충북은 동고서저(東高西低)의 경동지괴(傾動地塊, 땅이 한쪽 부분만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한쪽은 경사가 급한 절벽을 이루고 다른 한쪽은 경사가 완만해진 지형)로서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은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동쪽은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는 태백산맥이 있고, 동쪽은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소백산맥이 있다. 서쪽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과 경계를 이루는 차령산맥이 둘러싸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의 단양과 영주시를 잇는 죽령(竹嶺), 충북의 괴산·충주시와 문경시를 잇는 조령삼로(鳥嶺三路), 그리고 충북의 괴산과 경북 문경시 사이의 주항령(周項嶺), 충북의 보은과 경북 상주시 사이의 화령(化嶺), 충북의 영동과 경북 김천시 사이의 추풍령(秋風嶺)이 충북과 경상북도를 잇는 교통로로 활용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지금은 충북의 제천·단양과 경상북도 영주시를 잇는 중앙고속도로, 충북의 충주시와 경상북도의 문경시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북의 청주·보은과 상주를 잇는 당진영덕고속도로, 충북의 옥천·영동과 경상북도의 김천시를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기호지방과 영남지방을 잇는 교통로가 되고 있다. 또한 차령산맥의 오갑산(609m)에서 분기한 노령산맥은 충북의 북부 지방을 흐르는 남한강과 남부 지방을 흐르는 금강 수역의 분수령이 된다.

충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삼한 시기에는 마한에 속했다가 삼국이 정립된 이후에는 백제에 속했다. 이후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고구려가 한강 수계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서(충주 고구려비)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금강 유역으로 수도를 옮기고 신라와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한편 신라는 한강 수계까지 북상하여 영토를 확장함으로써(단양 적성 진흥왕순수비) 충북은 삼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는 충북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충북을 관통하는 길이 남-북이나 남동-북서 방향으로 나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결국 한강이 흐르는 단양, 제천, 충주, 음성, 진천, 괴산은 옛 고구려 땅이고, 금강이 흐르는 청주, 보은의 일부 지역은 옛 백제 땅이고, 보은, 옥천, 영동은 신라의 고토였다. 이 때문에 충북은 삼국 문화의 교류 지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고구려의 옛 땅에는 북방문화가 반영되어 있고, 백제와 신라의 옛 땅에는 남방 문화가 반영되어 있어 한강 유역에서는 북방계 지명인 ‘忽’ 계통의 ‘골’이 많이 나타나고 금강 유역에서는 남방계 지명인 ‘夫里(火)’ 계통의 ‘울’과 ‘谷’을 나타내는 ‘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한강 유역에서는 원시 민간신앙의 흔적으로 북방계의 ‘서낭제’가 분포되어 있고, 금강 유역에는

남방계의 ‘탑신제(塔神祭)’가 분포되어 있다. 충북의 지리적인 위치와 지형적인 특성상 충북 방언은 인접 방언에 둘러싸여 그 방언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다음 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어로부터의 지속적인 언어적 차용이 있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방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방언의 특징 또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의 내륙에 위치하여 타 방언에 둘러싸인 충북 방언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정밀하게 조망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의 글 말미에 충북 방언은 충북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충북이 내륙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상 충북 방언은 인접 방언과의 접촉을 통하여 독특한 방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면서 충북 방언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충북 방언의 분포와 하위 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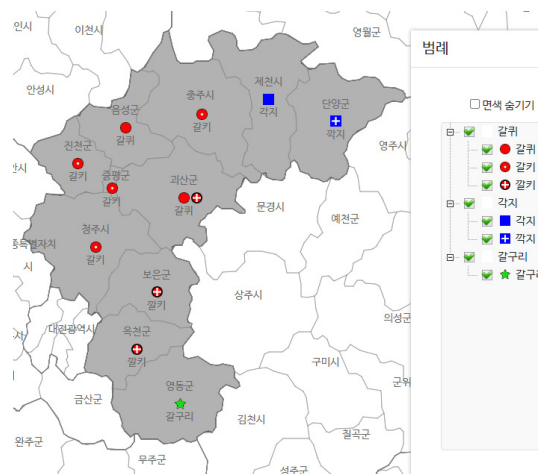
한반도에서 쓰이는 한국어를 언어적 특징과 분포를 고려하여 방언권을 구획하면 동북 방언권(함경남·북도), 서북방언권(평안남·북도), 중부방언권(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충청남·북도), 서남방언권(전라남·북도), 동남방언권(경상남·북도), 제주도방언권(제주도) 등 여섯 개의 대 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충북 방언은 이 가운데 중부방언권에 속한다. 그런데 충북은 한반도의 내륙에 위치하여 사방이 다른 방언을 쓰는 지역에 둘러싸여 있어 충북 방언에는 다양한 방언형이 섞여 사용된다는 특징도 보여준다. 특히 어휘의 경우는 접촉하는 인접 방언권을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표준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지리적인 분포를 달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 몇몇 어휘를 중심으로 충북 지역의 방언형 분포와 전국 방언과의 관계를 방언 분포 지도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갈퀴]

표준어 ‘갈퀴’는 ‘낙엽이나 곡물 따위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기구로 한쪽 끝이 휘어진 갈고리 모양의 대쪽이나 철사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든 것’을 뜻하는 말이다. 충북에서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방언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표준어형 ‘갈퀴’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각지’계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갈구리’계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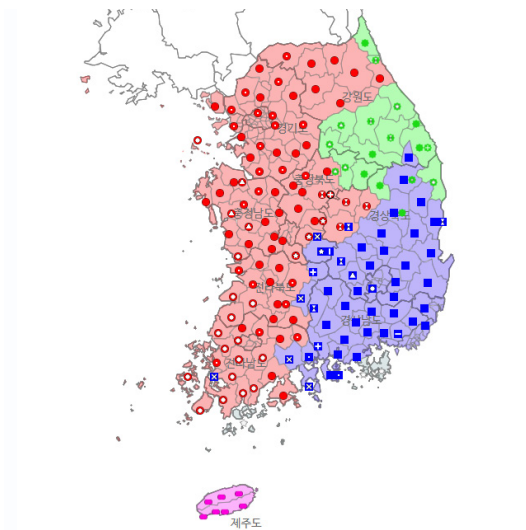
지도를 보면 충북의 북부 지역인 단양과 제천에서는 ‘각지’계열의 ‘각지’와 ‘깍지’가 쓰이고 충북의 남단인 영동에서는 ‘갈구리’가 쓰이는 반면 대부분의 중부 지역에서는 ‘갈퀴’형인 ‘갈퀴, 갈키, 갈키’가 쓰인다. 이것을 전국 지도와 연동해서 살펴보면 단양과 제천의 ‘깍지, 각지’는 강원도 방언의 영향을 받았고, 영동의 ‘갈구리’형은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도 1] '갈퀴'의 충북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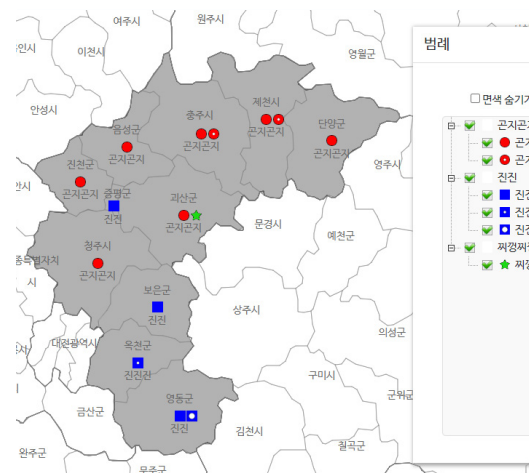
[곤지곤지]

‘곤지곤지’는 젓먹이 어린아이에게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댔다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또는 그런 동작을 뜻하는 말이다. ‘곤지곤지’의 충북 방언형은 크게 ‘곤지곤지’계와 ‘진진’계 방언형으로 나뉜다. ‘곤지곤지’계에는 ‘곤지’가 더 있고 ‘진진’계에는 ‘진진’이 반복된 ‘진진진’과 ‘진진진진’형이 있는데 분포상으로 보면 ‘곤지곤지’형은 충북의 중북부 지역에서 쓰이는 북부 지역형이고 ‘진진’계는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남부 지역형이라는 점에서 중부 지역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양분되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전체로 보면 ‘곤지곤지’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폭넓게 쓰이는 중부방언권 어형이고 ‘진진’계는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폭넓게 쓰이는 동남방언권 어형이라는 것을 알 수



[지도 1-1] '갈퀴'의 전국 방언 분포

있다. 여기에 괴산에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된 ‘지깁지깁’은 전라도 지역에서 폭넓게 쓰이는 서남방언권 어형이다. 이러한 사실은 충북 방언이 인접 방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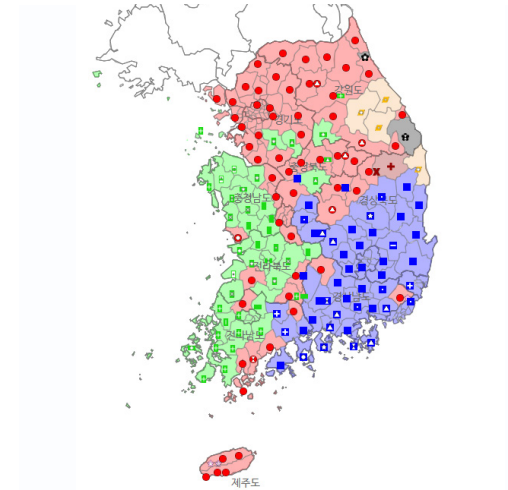


[지도 2] ‘곤지곤지’의 충북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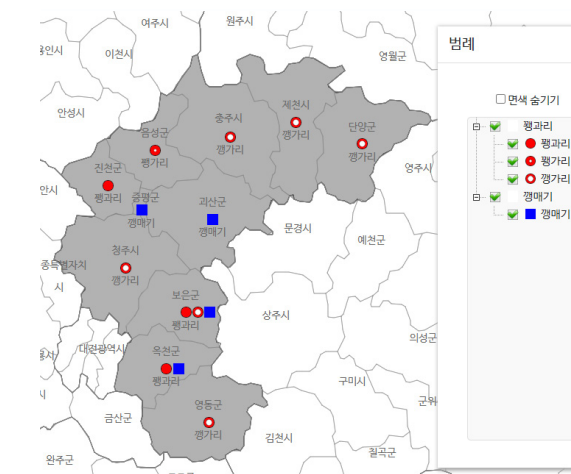
[팽과리]

‘팽과리’는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로 닛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다. 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고 북과 함께 굿에도 쓴다. ‘팽과리’의 방언형은 ‘팽과리’계와 ‘깁매기’계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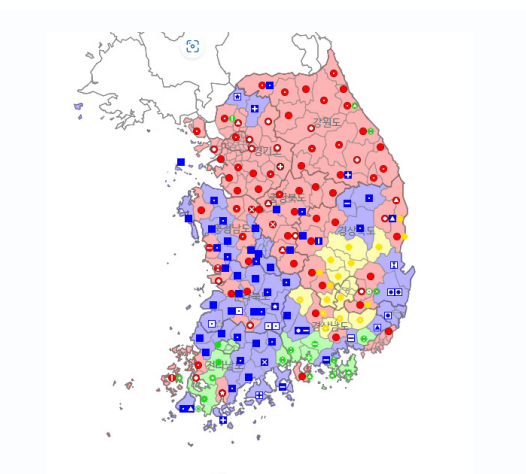
충북 전체적으로 보면 ‘팽과리’계가 넓게 쓰이고 ‘깡매기’계는 충북의 중부 지역에서 주로 쓰인다. ‘팽과리’계의 충북 방언형으로는 표준어형 ‘팽과리’와 그 분화형 ‘팽가리, 깡가리’형이 쓰인다. 전국 지도에서 붉은색의 ‘팽과리’계는 중부방언권 어형이고, 파란색의 ‘깡매기’계는 서남방언권 어형이다. 그리고 노란색은 ‘매구’계 어형인데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쓰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깡매기’계는 마한땅에 속했던 지역에서 주로 관찰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국 지도에서 보듯이 ‘팽과리’계 방언형이 ‘깡매기’계 지역과 ‘매구’계 지역에까지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깡매기’계가 ‘팽과리’계 지역과 ‘매구’계 지역으로 전파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팽과리’계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 충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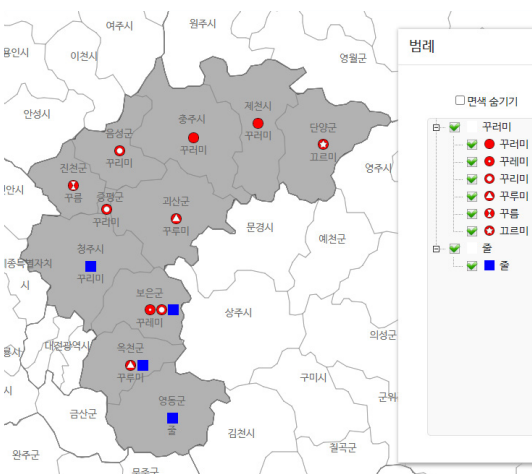
[지도 2-1] ‘곤지곤지’의 전국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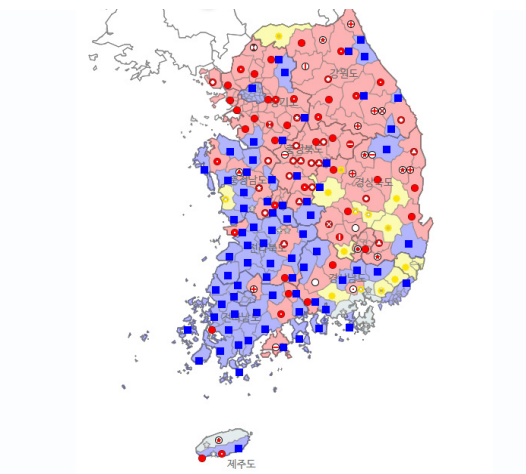
[지도 3] ‘팽과리’의 충북 방언 분포



[지도 3-1] ‘팽과리’의 전국 방언 분포



[지도 4] ‘꾸러미’의 충북 방언 분포



[지도 4-1] ‘꾸러미’의 전국 방언 분포

[꾸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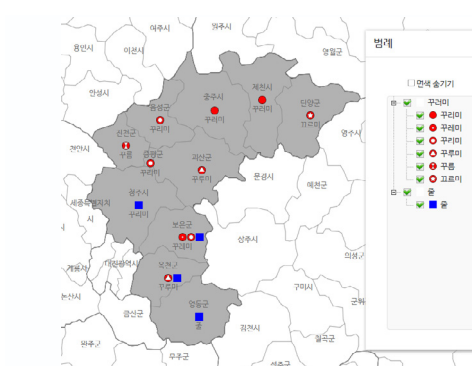
‘꾸러미’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달걀 열 개를 묶어 세는 단위 또는 그런 묶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금은 종이로 만든 달걀판에 달걀을 넣고 포장하지만 예전에는 짚으로 엮 달걀과 닿지 않게 하나씩 묶어 10개를 길게 한 줄로 만들어 들고 다녔다. 달걀 10개씩을 단위로 세는 충북 방언형은 ‘꾸러미’계와 ‘줄’계로 나뉜다. ‘꾸러미’계 방언형은 ‘꾸러미’와 그 분화형인 ‘꾸레미, 꾸리미, 꾸루미, 꾸름, 끄리미’ 등이 쓰이고 ‘줄’계는 ‘줄’만 관찰된다.

방언 분포를 보면 ‘꾸러미계’는 주로 충북의 중북부 지역에서 쓰이고 ‘줄계’는 청주 이남 지역에서 쓰이는 분포를 보인다. 전국 지도에서 보듯이 ‘꾸러미’계 어형이 ‘줄’계가 쓰이는 서남방언권 지역에서도 공존하고, ‘두름’계 어형이 쓰이는 동남방언권 지역에서도 공존하면서 쓰이기도 한다. 이는 표준어 계열의 방언형인 ‘꾸러미’계가 ‘줄’계 지역과 ‘두름’계 지역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줄’계 방언형이나 ‘두름’계 방언형이 ‘꾸러미’계 지역으로 전파된 경우도 있지만 ‘꾸러미’계의 확산세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꾸러미’계 방언형들은 중부방언권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줄’계 방언형은 서남방언권에 분포하여 한반도 남부를 북북서에서 남남동 방향으로 비스듬히 양분하는 분계선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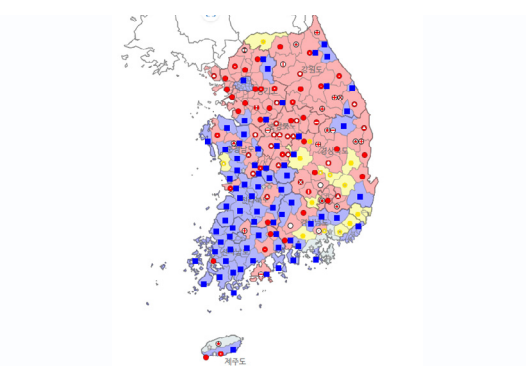
[노을]

‘노을’은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 별정계 보이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충북에서는 ‘노을’계, ‘농오리’계, ‘노리’계가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어원에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을’계 방언형으로는 ‘노을, 놀, 노을’이 쓰이는데 ‘놀’은 ‘노을’의 준말형이다. ‘농오리’계 방언형으로는 ‘농오리, 농을, 농을’이 쓰이는데 ‘농을’은 ‘농오리’의 준말형이다. ‘노리’계는 ‘놀’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노리’는 충북의 북부인 제천, 단양에서 쓰이고, ‘농오리’계는 청주와 보은, 옥천 등 중부 지역 이남에서 주로 쓰인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노을’계가 쓰인다. ‘노을’의 방언 분화형 분포를 보면 충북을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노을’의 방언형을 전국적인 분포로 보면 앞에서 살펴본 ‘팽과리’와 ‘꾸러미’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도 5] ‘노을’의 충북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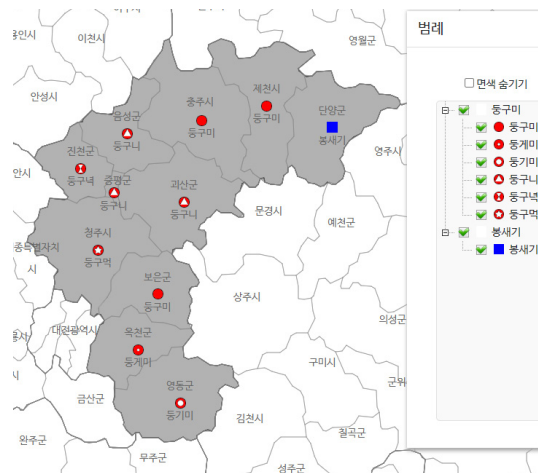


[지도 5-1] ‘노을’의 전국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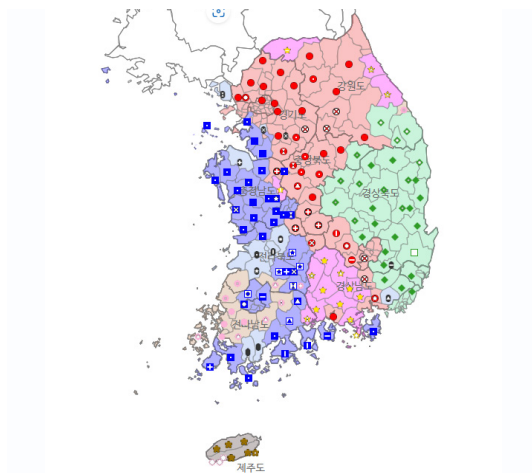
[떡둥구미]

‘떡둥구미’는 짚으로 둥글고 윗이 깊게 결어 만든 것으로 주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담는 데에 쓰이는 그릇의 한 종류다. 주로 농촌에서 사용하고 지금은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대체되어 점차 사라져 가는 도구다. 이 때문에 이 명칭도 노년층에서 주로 사용하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떡둥구미’의 충북 방언형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크게 ‘둥구미’계와 ‘봉새기’계가 쓰이는데 ‘봉새기’는 ‘단양’에서만 쓰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둥구미’와 그 분화형인 ‘둥게미, 둥기미, 둥구니’와 ‘둥구먹, 둥구녁’ 등이 쓰인다. ‘떡둥구미’의 전국 지도를 보면 충북 단양에서 사용하는 ‘봉새기’가 인접한 동남방언권(경상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충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둥구미’계가 쓰인다는 것은 충북 방언이 중부방언권(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 속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지도 6] ‘떡둥구미’의 충북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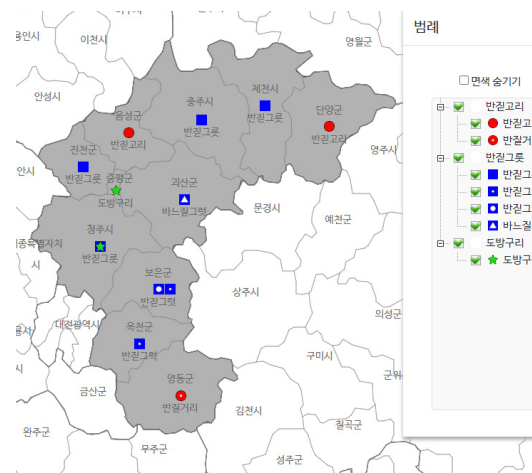
[지도 6-1] ‘떡둥구미’의 전국 방언 분포

[반질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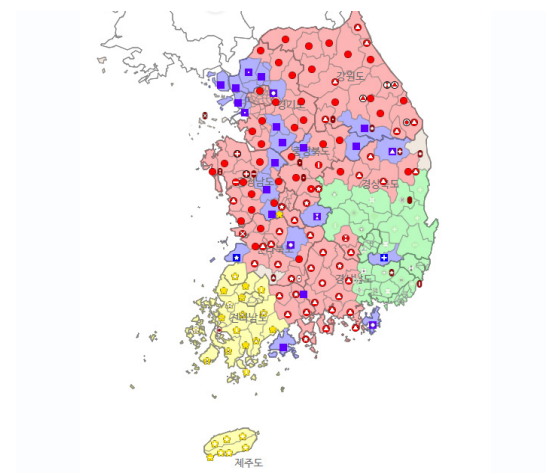
‘반질고리’는 바늘, 실, 골무, 형짚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이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집이 많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단어도 노년층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반질고리’의 충북 방언형은 ‘반질고리’계와 ‘반질그릇’계 그리고 ‘도방구리’계로 나눌 수 있다. ‘반질고리’와 ‘반질그릇’은 각각 ‘바느질’의 축약형 ‘반질’에 ‘고리’와 ‘그릇’이 합성된 말이다. ‘고리’는 키버들의 가지나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상자같이

만든 물건으로 일종의 그릇이고,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므로 둘다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을 담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반질고리’계가 단양, 음성, 영동 지역에서 쓰이고 도방구리가 증평, 청주 지역에서 쓰이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반질그릇’계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반질그릇’계 어휘가 점차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지도에서 보듯이 ‘바늘당시기’계 방언형이 쓰이는 경상북도 북부와 경상남도 서부 지역, 그리고 ‘바느질상자’계 방언형이 쓰이는 전라남도 지역에까지 ‘반질그릇’계 방언형이 침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질고리’계 어휘가 쓰이던 지역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지도 7] ‘반질고리’의 충북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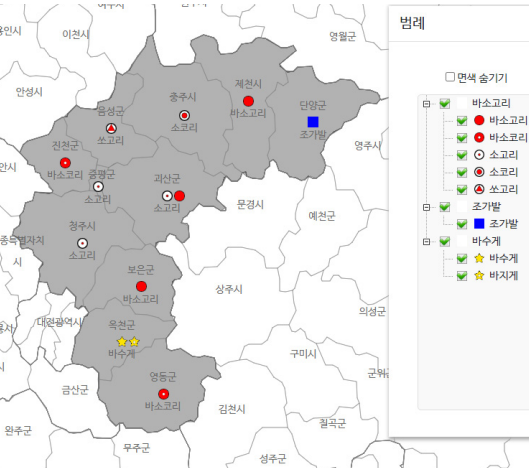


[지도 7-1] ‘반질고리’의 전국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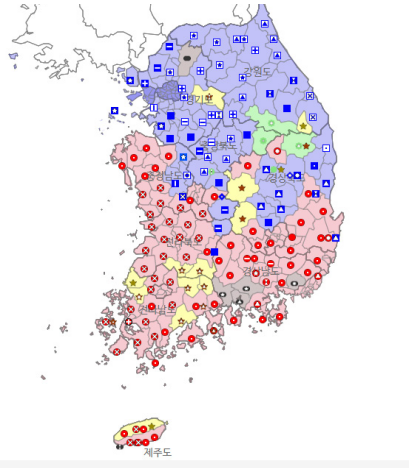
[발채]

‘발채’는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으로 찌리나 대오리로 둥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결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끈으로 두 개의 고리를 달아서 얹을 때 지겟가지에 끼워서 쓴다. ‘발채’의 충북 방언형은 ‘바소고리’계와 ‘조가발’계 그리고 ‘바수계’계가 쓰인다. ‘바소고리’는 ‘발’과 ‘소고리’가 합성된 것이고 ‘조가발’은 ‘조가(조개)’와 ‘발’이 합성된 것이다. 이때의 ‘발’은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을 뜻한다. ‘바소고리’는 ‘발’로 만든 소고리(소쿠리)가 되고 ‘조가발’은 조개같이 생긴 발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조가발’은 북부 지역인 단양에서 쓰이고 ‘바수게, 바지게’는 남부 지역인 옥천에서 쓰인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바소고리, 바소코리, 소고리, 소코리, 쏘고리’ 등이 쓰여 흐릿하지만 세 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어 보인다. 전국 지도를 참조해 보면 ‘조가발’은 강원도 방언형이고, ‘바수게, 바지게’ 형은 남부 지역 방언형이 충북 지역으로 확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지도에 나타나는 방언형 분포를 보면 ‘바소고리’계는 확산되고 ‘발, 조가발’ 형과 ‘바지게’류는 상대적으로 사용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도 8] ‘발채’의 충북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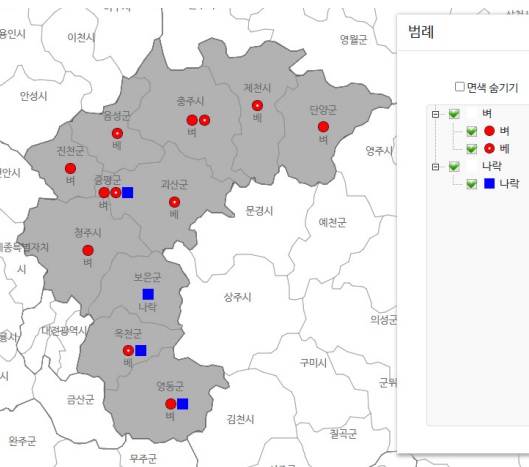
[지도 8-1] ‘발채’의 전국 방언 분포

[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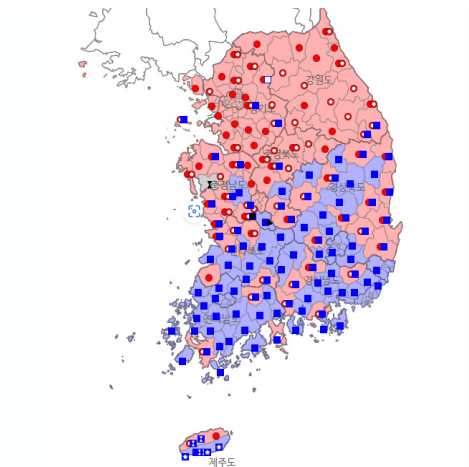
‘벼’는 벼과 식물의 한해살이 풀로 봄에 논에 심어 가을에 거두는 곡식을 말한다. ‘벼’는 식물로서의 이름과 그 식물의 열매를 뜻하는 곡식 이름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식물로서의 벼를 뜻한다. 충북에서 쓰이는 ‘벼’의 방언형은 ‘벼’계와 ‘나락’계로 양분된다. ‘벼’계의 방언형으로는 주로 ‘벼, 베’가 쓰이고 ‘비’형으로 쓰이기도 한다.

충북에서 쓰이는 ‘벼’의 방언 분포를 보면 ‘벼’계 방언형은 보은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쓰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나락’계 방언형은 충북의 남부 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과 증평 지역에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를 통하여 ‘나락’형은 남부 방언형이고 ‘벼, 베’형은 북부 방언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분포를 보아도 ‘벼’계열 방언형은 대부분 북부 지역에 분포하고 ‘나락’계 방언형은 대부분 남부 지역에 분포하면서 각각의 방언형이 서로의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언형의 확산 정도를

보면 ‘벼’계가 더 멀리까지 더 넓게 확산 됨으로써 ‘나락’계는 상대적으로 사용 지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도 9] ‘벼’의 충북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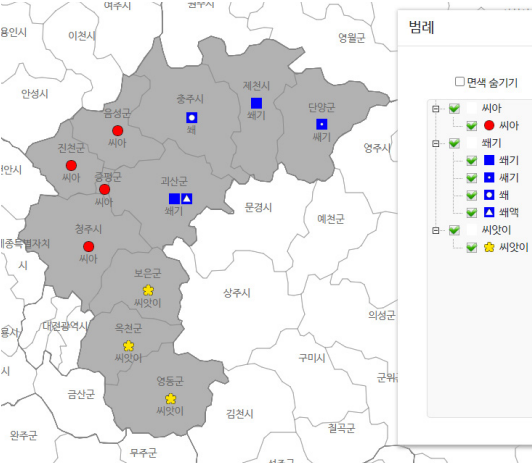
[지도 9-1] ‘벼’의 전국 방언 분포

[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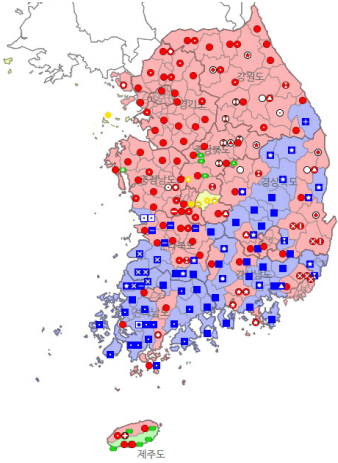
‘씨아’는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로 토막나무에 두 개의 기둥을 박고 그 사이에 둥근 나무 두 개를 끼워 손잡이를 돌리면 톱니처럼 마주 돌아가면서 목화의 씨가 빠지도록 만든 도구다. 지금은 목화 재배를 하지 않아 점차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방언형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차 박제화 되어 사멸하는 과정에 있는 단어다. 지금은 노년층에서만 잠자는 언어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충북에서 ‘씨아’의 방언형으로는 ‘씨아’와 ‘썰기’계 그리고 ‘씨앗이’형이 쓰인다. ‘썰기’계로는 ‘썰기, 썰기, 썰, 썰액’ 등의 분화형이 쓰인다.

충북에서 ‘씨아’의 방언형 분포는 배타적이어서 단양, 제천, 충주, 괴산 등 북부 지역에서는 ‘썰기’계 방언형이 쓰이고 음성, 진천, 증평, 청주 등 중부 지역에서는 ‘씨아’형이 쓰이는데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지역에서는 ‘씨앗이’형이 쓰인다. ‘씨아’의 방언형 분포는 충북의 하위 방언권을 북부, 중부, 남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을 말해준다. ‘씨아’의 방언형을 전국적인 분포로 보면 과거의 삼국시대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씨아’계 방언형은 옛 고구려 지역이었던 경기도 강원도와 충북의 중부 지역에 분포하고, ‘썰기’계 방언형은 옛 신라지역이었던 경상남북도와 충북의 북부 지역에 분포하고,

‘씨앗이’계 방언형은 옛 백제지역이었던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충북의 남부 지역에 분포하여 쓰이는 모습을 보인다. ‘씨아’의 방언형 분포는 충북의 역사 문화적인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도 10] ‘씨아’의 충북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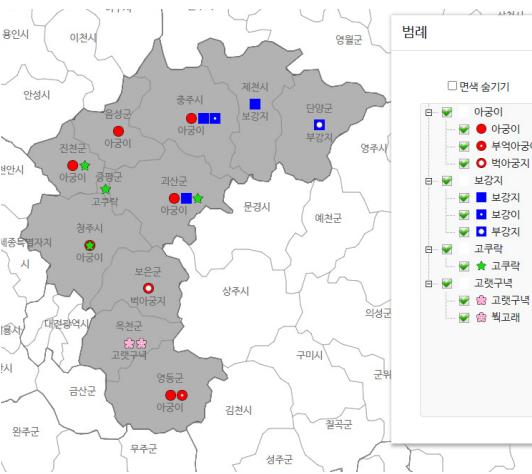


[지도 10-1] ‘씨아’의 전국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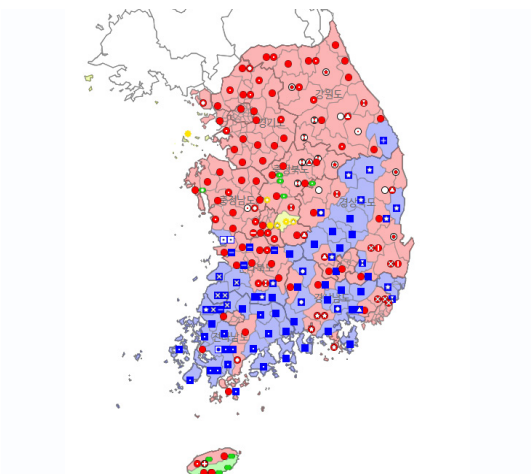
[아궁이]

‘아궁이’는 방이나 솥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을 가리킨다. 현대식 주거 공간에는 없는 것이어서 젊은층 세대로 갈수록 점차 잊혀 가는, 사멸의 길을 걷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젊은층 세대는 이 단어를 추상적으로 알고 있고 노년층 세대는 머릿속에만 남아 있는, 잠자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아궁이’의 충북 방언은 ‘아궁이’계와 ‘보강지’계 그리고 ‘고쿠락’이 쓰이고 기타 ‘고랫구녁’계가 쓰인다. ‘아궁이’계는 ‘아궁이’와 여기에 ‘부억’이 붙은 ‘부억아궁이, 뵙아궁지’가 쓰이고, ‘보강지’계로는 ‘보강지’와 그 분화형 ‘보강이, 부강지’가 쓰인다.

‘아궁이’의 방언 분포를 보면 북부 지역인 단양, 제천, 충주와 괴산에서는 ‘보강지’계 방언형이 쓰이고 ‘고랫구녁’계가 쓰이는 옥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아궁이’계가 쓰인다. 그리고 진천, 증평, 괴산, 청주시 등 중부 지역에서는 ‘고쿠락’형이 ‘아궁이’계와 공존하며 쓰인다. ‘아궁이’의 방언형 분포를 전국적으로 보면 ‘고쿠락’형은 남부 방언권(서남 방언권, 동남 방언권)에서 쓰이는 ‘부석’계 방언형과 중부 방언권에서 쓰이는 ‘아궁이’계 방언형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지도 11] ‘아궁이’의 충북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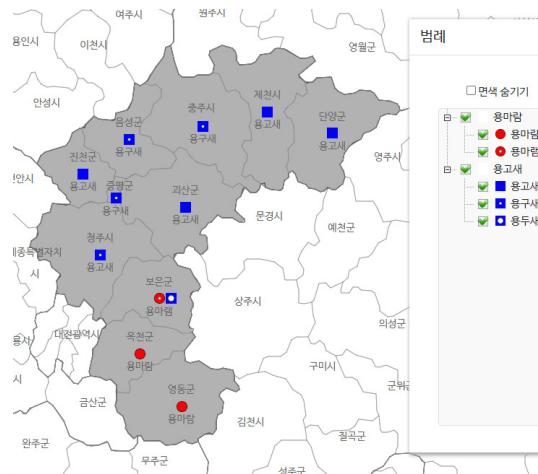


[지도 11-1] ‘아궁이’의 전국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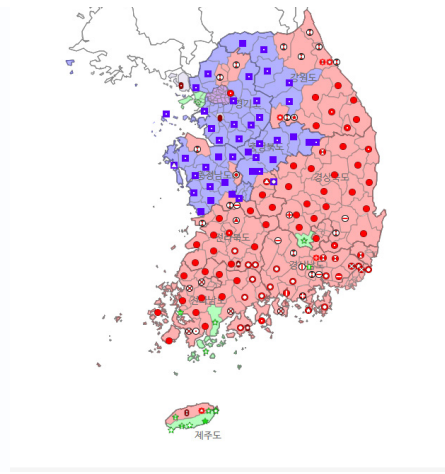
[용마름]

‘용마름’은 초가의 지붕마루에 덮는 ‘ㅅ’ 자형으로 엮은 이엉을 뜻한다. 요즈음에는 민속촌이나 특정 인물의 생가를 보존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초가를 볼 수 없어 ‘용마름’을 보거나 단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을 이어오는 몇몇을 제외하면 지금은 용마름을 엮을 수 있는 사람도 고령의 노인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다. 건축 양식의 변화로 ‘초가’가 사라지면서 ‘용마름’도 점차 소멸하는 어휘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용마름’의 충북 방언형은 ‘용마람’계와 ‘용고새’계로 양분된다. ‘용마람’계의 충북 방언형으로는 ‘용마람, 용마램’이 쓰이고, ‘용고새’계의 충북 방언형으로는 ‘용고새, 용구새, 용두새’형이 쓰인다.

‘용마람’계는 충북의 남부 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에서 사용되고 ‘용고새’계는 보은 지역을 매개로 나머지 지역에서 사용되어 충북은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으로 충북의 하위 방언권이 양분된다. 보은에서는 ‘용마램’과 ‘용두새’가 공존하는데 이런 현상은 서로 다른 두 방언형이 접촉하는 지역에서 흔히 나타난다. ‘용마름’의 방언형 분포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의 남부 지역과 충북의 남부 지역을 경계로 서남방언권과 동남방언권 그리고 태백산맥을 경계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용마람’ 계열의 방언형이 쓰이고 나머지 충남 대부분과 충북 중북부 지역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는 ‘용고새’ 계열의 방언형이 쓰여 남북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서남단 지역에서는 고어형인 ‘뭇라’계의 방언형이 쓰이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지도 12] '용마름'의 충북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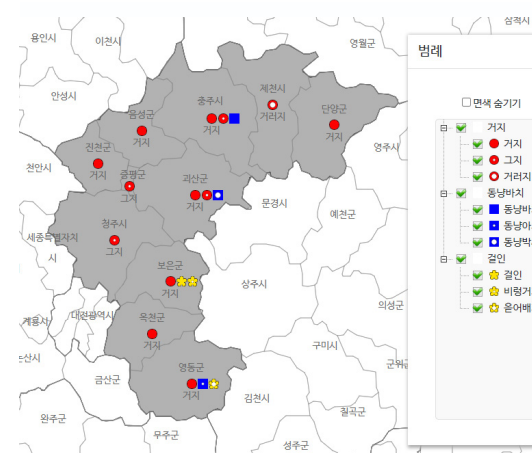
[지도 12-1] ‘용마름’의 전국 방언 분포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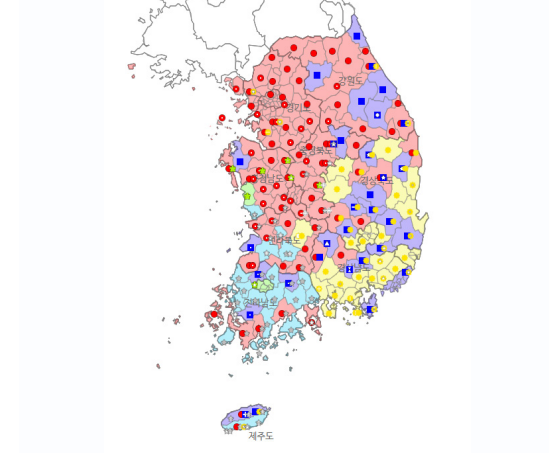
‘거지’는 국어사전에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으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이 ‘거지’에 대한 충북 방언형은 ‘거지’ 계열의 어형과 ‘동냥바치’ 계열의 어형 그리고 기타 어형들로 나눌 수 있다. ‘거지’ 계열의 방언형으로는 ‘그지, 거러지’가 쓰이고, ‘동냥바치’ 계열의 방언형으로는 ‘동냥바치’ 외에 ‘동냥아치, 동냥박씨’가 쓰인다. ‘동냥바치’는 ‘돌아다니며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일’을 뜻하는 ‘동냥’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바치’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동냥아치, 동냥박씨’는 ‘동냥’에 각각 ‘-바치’의 변이형인 ‘-아치, 박씨’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그리고 기타 방언형으로 ‘걸인, 비렁거지, 음어배기’가 있는데 ‘걸인(乞人)’은 거지’의 한자어형이고 ‘비렁거지’는 남의 물건을 공짜로 달라고 하는 ‘빌-다’의 어간에 접미사 ‘-렁’이 붙은 말에 ‘거지’가 합성된 말로 의미상으로는 ‘거지’에 해당한다. ‘음어배기’는 ‘얻어’의 변이형 ‘음어’에 그런 물건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배기’가 붙은 말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을 뜻한다.

‘거지’의 방언형 분포를 보면 충북 전체적으로 표준어 계열의 ‘거지’와 그 분화형이 쓰이고 여기에 ‘동남바치’ 계열의 방언형과 기타 방언형인 ‘걸인, 비렁거지, 은어배기’가 공존하고 있다. ‘거지’의 방언형이 쓰이는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면 충북은 ‘거지’와 그 분화형이 확산하는 끝자락에 있으며 여기에 분홍색의 ‘동남바치’ 계열의 서남방언권 방언형들과 파란색의 ‘거러지’ 그리고 동남방언권 어형인 노란색의 ‘비렁거지’형이 함께 쓰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어휘와 달리 ‘거지’의 경우 충북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전통적인 방언형이 점차 사라지고 ‘거지’ 계열의 분화형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충북의 남부 지역에 분포하여 쓰이는 모습을 보인다.



[지도 13] ‘거지’의 충북 방언 분포



[지도 13-1] ‘거지’의 전국 방언 분포

4. 충북 방언의 위상

위에서 보았듯이 어휘는 저마다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북의 방언 어휘들이 다른 지역의 그것들과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공통점이 있는 양상을 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충주를 매개로 한 충주, 제천, 단양의 북부권과 보은을 매개로 한 보은, 옥천, 영동의 남부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중부권으로 대략적인 하위 방언 구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를 고려하면 충북 방언은 보은을 매개로 한 남부 지역은 남부방언권에 속하고 제천, 단양을 매개로 북부 지역은 중부방언권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북 방언이 보이는 이러한 양상은 크게 중부방언권과 남부방언권이 충돌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양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충북 지역의 방언 사용 양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방언형의 형성 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충북 방언에 충북과 인접한 지역의 방언형이 공존한다는 것은 인접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충북 방언은 충북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충북이 내륙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상 충북 방언이 인접 방언과의 접촉을



하늘재 길



하늘재 표지석

계림령이 역사상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아달라왕 3년(156)이다. 문헌상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로이자 고갯길이다.

계림령은 계림현(鷄立峴), 마목현(麻木峴), 마골산(麻骨山), 마골점((麻骨岾), 대원령(大院嶺), 한원령(寒喧嶺), 하늘재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계림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온달전에는 ‘계림현’으로 기록되어 있고 보장왕은 ‘마목현’이라고도 불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계림령은 ‘대원령(大院嶺)’이라 불렀다. 대원령이란 이름은 충청도에서 계림령으로 오르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미륵리사에서 유래하였다. 미륵리사지 발굴조사에서 ‘明昌三年(1192) … 大院寺’가 새겨진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미륵리사지의 원래 이름이 ‘대원사’였음이 밝혀졌다. 대원령은 대원사의 고개란 의미이다.

고려 말 왜구가 창궐하자 공민왕은 바다를 경유하던 조운(漕運)을 육운(陸運)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지금의 조령(鳥嶺, 새재)이 개척되며 하늘재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원이 폐쇄되고 통행도 뜸해지면서 대원령이란 명칭도 사라졌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한원령(寒喧嶺)’으로 불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원령’이 ‘하늘재’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늘재’는 하늘에 닿을 듯 높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령에 관방시설을 설치하며 일대 다른 영로를 폐쇄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이 영향으로 하늘재는 영로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일대의 같은 교통로상에 있는 하늘재, 지름재, 닛돈재를 모두 합쳐 계림령(鷄立嶺)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고려시대 미륵리사지에 대원(大院)이 생기면서 계림령 고갯길이 대원령과 지름재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미륵리사에서 문경 관음리로 넘는 고개를 하늘재, 수안보로 넘는 고개를 지름재, 송계 골짜기를 통해 남한강의 황강나루(충주댐)에 닿는 길을 닛돈재라 부른다.

하늘재에는 긴 시간만큼이나 굵직한 역사의 흔적이 쌓이고 쌓였다. 신라가 이 길을 내고 난 후 고구려의 온달장군과 연개소문도 이 길을 넘으며 출사표를 던졌고, 신라의 마의태자와 덕주공주가 망국의 울분을 달래며 넘었고, 상주성을 치러가던 후고구려의 궁예가, 홍건적을 피해 내려온 고려 공민왕도 이 길을 걸으며 굵이굵이 얹힌 사연을 길 위에 남겼다.

하늘재 일대는 삼국의 영토확장에 대한 욕망으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지만, 더불어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과 문물이 오고 간 문명 교통로이기도 했다. 특히, 고구려 승려 묵호자와 아도가 신라에 불교를 전래할 때 이 길을 통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이 길을 통해 신라 불교문화는 한강유역으로 확산되었다. 지금도 하늘재 서쪽 송계계곡을 따라 미륵대원지, 월광사지, 사자빈신사지, 덕주사지가 있다. 또 하늘재를 넘어 문경면 관음리에도 이곳으로 연결되는 옛길 주변으로 많은 불교유적이 있다.

하늘재 양쪽의 지명도 예사롭지 않다. 충주에 속한 미륵리는 내세의 소망을 모으는 미륵세상을, 문경에 속한 관음리는 현세의 고통을 정화하는 관음세상을 의미한다. 이 둘을 이어주는 하늘재는 현세와 내세를 넘나드는 고갯길이라는 정신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하늘재 길은 수려한 풍광과 함께 길을 따라 형성된 많은 전설과 정감 어린 불교 문화유산들이 자리 잡은 불교문화의 회랑지대였다.

마음과 몸의 안식처, 미륵대원지

미륵대원지(彌勒大院址)는 종교시설인 사찰(寺刹)과 교통편의시설인 원(院)이 기록과 발굴조사로 확인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유적이다.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가던 중 신라의 재기를 뜻하며

창건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미륵대원은 고대 교통로 중 가장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계림령로의 고갯길 아래에 있다. 하늘재 넘어 문경시 관음리의 관음사(觀音寺)와 함께 계림령로 관리운영을 위해 창건되었다.

미륵대원의 창건 및 폐사 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설이 있으나 고려 현종 10년(1019) 이후 22역도(驛道) 525역(驛)으로 교통로가 정비된 기록과 1977년부터 1991년까지 다섯 차례 실시된 발굴조사 성과들을 볼 때 11세기 후반에 창건되어 18세기경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륵대원지 전경(1933년,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미륵대원지 전경(2025년)

미륵대원지는 다른 절들과 달리 남쪽을 등지고 북쪽을 향하여 펼쳐져 있다. 남쪽의 금당지를 중심으로 단차를 달리하면서 팔각석등과 오층석탑 그리고 돌거북이, 당간지주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일탑식 가람배치형식을 하고 있다.

현재 사지에는 일체의 목조건물은 없어지고, 부러진 채 섰거나 누운 당간지주의 각 부분, 돌거북, 오층석탑과 석등, 석축으로 둘러싸인 미륵불상과 이런저런 건물 주춧돌까지, 온통 돌뿐이다. 그러나 그 돌들은 불국사의 돌과 같이 정교하지도 매끈하지도 않다. 다보탑과 같이 조각적이거나 기교적이지도 않다. 미륵대원의 돌들은 거칠고 투박하다. 가장 공을 들여 축조한 석굴의 돌들마저 심한 불을 맞아 찌개지고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 세부 디테일이 없어지고 둥글둥글해졌다. 그러나 그 모습들에는 원초적인 힘들이 가득 차 있다. 아마도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특이한 새로운 지역적 양상을 구성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륵대원지 전경(항공촬영)

미륵대원지의 동쪽 하늘재 방향으로 원지(院址)로 추정되는 널찍한 장방형 건물터가 남아 있다. 돌로 만든 축대와 초석 등이 남아 있으며, 평면 ‘口’자형에 가깝게 건물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륵대원지는 중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부처님께 불공(佛供)을 드리는 예배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역원(驛院)의 역할을 겸했던 것이다. 미륵대원지는 마음과 몸이 함께 휴식을 취하는 사찰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계림령의 주요 안식처였다.



미륵대원지 배치도



미륵대원지 배치현황(항공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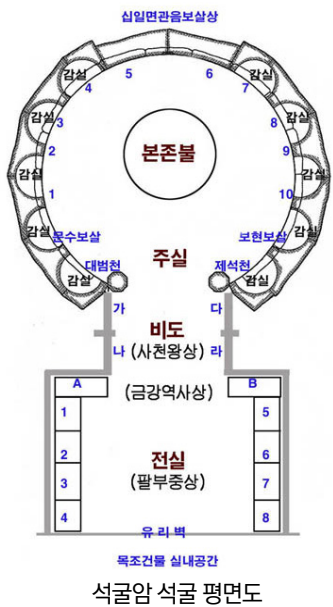
한국형 석굴사원의 완성, 미륵대원

미륵대원은 우리나라 석굴사원(石窟寺院)의 계보(系譜)를 잇는 중요한 유적이다.

인도에서 발생한 석굴사원은 중앙아시아와 중국 북부를 거쳐 한반도에 전래되었다. 인도나 중국과 같이 사암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자연 암반을 파고 들어가 내부공간을 만든 굴착석굴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강암이 주종을 이루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자연적으로 굴을 파서 사원을 조성하기는 어려웠다. 애써 파내도 결을 따라 붕괴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굴이나 지형을 찾아 석굴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초적인 석굴에 대한 동경은 너무나 강해 돌을 쌓아 석실을 만드는, 이른바 축조석굴들이 만들어졌다. 그 대표작이 경주 석굴암 석굴이다.

경주 석굴암은 입구인 직사각형의 전실(前室)과 원형의 주실(主室)이 복도 역할을 하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360여 개의 넓적한 돌로 원형 주실의 천장을 교묘하게 구축하였다. 내부공간에 본존불인 석가여래불상을 중심으로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및 제자상과 역사상, 천왕상 등 총 40구의 불상을 조각했으나 지금은 38구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석굴암 축조과정에서 직경 3m, 높이 1m, 무게 약 20톤의 천정 중앙의 돌덧개를 엮는 작업 등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석굴암 석굴 평면도



석굴암 본존불

그 후에 등장한 반 축조석굴, 즉 돌로 석실을 만들고 그 위를 목조지붕으로 덮는 형식은 넓은 공간과 석굴의 분위기를 만족시켰다. 그 최후의 걸작이 바로 미륵대원의 석굴이다. 미륵대원은 한국 석굴사원의 마지막일 뿐 아니라, 인도에서 발생하여 한반도에 도착한 국제적인 석굴운동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미륵대원의 보호석실은 네모반듯한 평면의 주실(主室)과 그 앞에 있는 전실(前室)로 구성되어 있다. 주실은 본래 목조가구에 의하여 상반부를 조성한 반축조석굴의 법당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상반부의 목조건물은 불타버리고, 불탄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석조물이 동, 서, 남의 삼면을 ‘ㄱ’자 형태로 에워싸고 있다. 본존불인 석가여래입상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삼면 석벽은 심하게 불에 탄 후 풍우에 시달린 까닭에 곳곳이 튀고 갈라져서 마치 대충 다듬은 자연석처럼 보이나, 창건 당시에는 거석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 쌓은 것이었다. 석실 각 면의 높이는 6m 내외로 위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륵대원지 보호석실 내부 동측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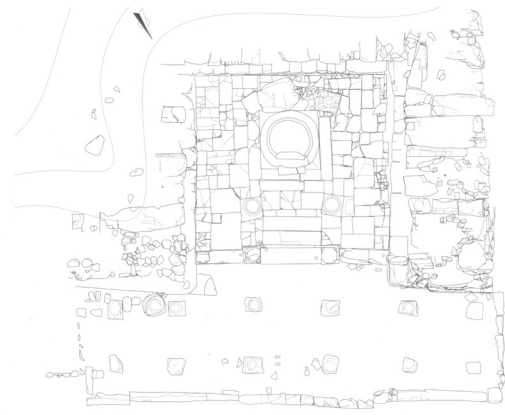


보호석실 감실 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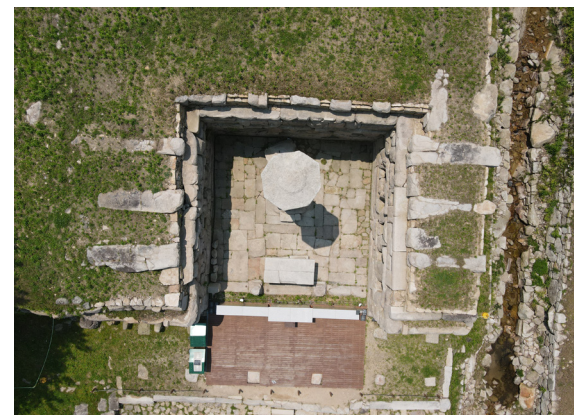
주실 내부의 벽을 살펴보면 아랫부분에 길다란 돌덩이를 놓혀 3단을 쌓은 위에 띄엄띄엄 기둥을 세워 감실을 만들었으며 그 위로 긴 돌을 가로 놓은 후 다시 작은 감실들을 만들고 또 긴 돌을 가로놓아 마무리하였다. 아래 위 감실에는 두터운 판석에 불좌상이나 보살상 등을 두 구나 세 구씩 조각하여 나란히 끼워 넣었으나 지금은 서너 군데에만 흐트러진 채 남아 있다.

주실 내부의 벽면은 거석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 그 표면이 수직을 이루도록 잘 맞추어 쌓았다면, 보호석실 밖 동측과 서측외벽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을 면만 맞추어 쌓았다. 아마도 공력(功力)과 비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실 바닥은 방형 판석을 맞추어 깔았다. 주실의 중앙에는 높이가 10.5m 정도 되는 석가여래입상이 위치하고 있다. 이 석불은 방형의 기단 위에 연꽃을 조각한 원좌(圓座)를 놓고, 그 위에 거대한 돌덩이 4개를 이어 올려 몸 전체를 이루고 갓과 좌대를 각각 6개의 돌로 하여 모두 6매의 돌로 만들었다. 이 석불의 네 귀퉁이에는 각 1개씩 4개의 초석을 배치하였다. 주초석은 평탄하게 다듬어놓은 상태로 동쪽 후면의 주초석을 제외한 초석에는 주좌 옆에 쇠시리가 새겨져 있다. 특히 서쪽 후면의 초석은 쇠시리 주변으로 연잎(蓮葉)을 장식하였다. 이런 쇠시리를 한 초석들은 대부분 삼국시대 건축에서 볼 수 있고, 고려시대 이후의 건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륵대원지 보호석실 평면도



미륵대원지 보호석실(항공촬영)

전실은 직사각형으로 초석들이 정연하게 노출되어 있다. 현존하는 초석과 주칸(柱間)으로 볼 때 전실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추정된다.

미륵대원의 보호석실은 주실 내부에서 본존불이 약간 뒤로 물러서 있고 석굴 주실 앞에 배례와 의식의 공간으로서 전실을 달아낸 점 등이 근본적으로 석굴암을 모방하고 계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석굴암에서는 주실이 둥글며 주실과 전실이 복도 역할을 하는 비도(扉道)로 연결되어 있지만, 미륵대원 보호석실은 주실이 네모지고 목조전실과 바로 맞닿아 있다.

미륵대원 보호석실을 구성하는 석재의 양은 외면만 해도 약 50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요 부위에는 여러 개의 부재를 쌓아 올리지 않고 단일 부재의 커다란 장대석을 사용하고 있다. 석재는 대부분 1톤 이상의 무게로 제작되어 있으며, 큰 부재의 경우 10톤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상부 목조건물이

소실된 이후에도 석재의 무게에 의해 웬만한 충격이나 진동에도 침하나 변형이 생기지 않고 전체적인 형상을 유지해 온 것으로 짐작된다.

요컨대 충주 미륵대원지는 석굴암이 갖는 인공 석굴사원의 양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석굴과 목조건축을 결합한 석굴사원의 절정을 이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충주 미륵대원지는 여러 문헌에 기록된 ‘대원사’ 및 ‘미륵대원’의 실체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입증되어, 하늘재 옛길 주변의 불교유적들과 함께 고려시대의 사회·문화·정치·경제·종교·교통·군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적 연구 가치를 간직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종교시설인 사찰과 교통 관련 시설인 원(院)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진 점, 특이한 가람배치, 목조 법당으로 구성된 석굴사원 형식의 건축적 가치, 소박하고 고졸한 기법으로 구성된 많은 석조문화재가 잘 남아 있어 중원문화권의 핵심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필요할 땐, 몸과 마음의 안식처 ‘미륵대원지’에 가서, 지성으로 기도하며 한 조각 한 조각 돌을 다듬은 옛 우리 장인의 마음 한 가닥 단편이라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04. 충북 역사 기행

연원도(連原道) 따라가기·6

10월, 여정을 마무리하며

김희찬(예성문화연구회)

2024년 10월 19일(토), 흐린 후 갬.

일곱 번째 길이다. 여섯 번째는 9월 21일에 연원도 북쪽 방면으로 나갔는데, 연원도의 중심역이었던 연원역을 제외하면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일곱 번째 길을 정리하며 연원도 따라가기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날은 연원도 동쪽 방면이었다. 단양, 영춘, 청풍 지역과 죽령 너머에 있었던 풍기의 창락역을 잇는 길이다. 아이 넷에 어른 다섯, 아홉 명이 길을 나섰다.

역명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9)	비고
영천역 靈泉驛	군 북쪽 40리에 있다.	在郡北四十里. 騎馬一匹, 卜馬六匹, 奴九口, 婢六口.	단양군 연원역 속역
오사역 吾賜驛	현 북쪽 48리에 있다.	在縣西四十里, 任縣. 連原屬. 中等馬一匹, 下等馬一匹, 奴四口, 婢三口. 舊在縣北十八里, 龍穴西邊. 今移任縣.	영춘현 연원역 속역
창락역 昌樂驛	옛날 순흥(順興)의 땅으로, 군 서쪽 13리에 있다. 승(丞)이 있다. 본도의 속역이 아홉이니, 평은(平恩)·창보(昌保)·웅천(甕泉)·유동(幽洞)·통명(通明)·안교(安郊)·도심(道深)·죽동(竹洞)·선안(宣安)이다. ○ 승(丞) 1인.	在府西三十里. 東距本府竹洞驛三十里, 南距安東幽洞驛四十里, 西距忠淸道丹陽長林驛三十里. 大馬二匹, 中馬五匹, 卜馬九匹, 驛吏五十三人, 驛奴二十二口, 驛婢十一口.	풍기군 · 순흥부 창락도 본역
장림역 長林驛	군 동쪽 10리에 있다.	在郡東十里. 連原道所屬. 大馬一匹, 騎馬二匹, 卜馬六匹, 奴十七口, 婢八口.	단양군 연원역 속역
수산역 壽山驛	군 남쪽 26리에 있다.	在府治西南二十五里. 大馬三匹, 騎馬五匹, 卜馬三匹, 驛卒男五十五口, 女四十五口.	청풍현(부) 연원역 속역

역명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9)	비고
안음역 安陰驛	옛 이름은 안성(安城)이다. 군 북쪽 5리에 있다.	舊名安城。在府治北五里。卜馬一匹，驛卒男二口，女三口。	〃 (수물)
황강역 黃江驛	군 서쪽 35리에 있다.	在府治西三十里。大馬三匹，騎馬三匹，卜馬五匹，驛卒男五十四口，女五十口。	〃 (수물)
연원역 連原驛	주 북쪽 5리에 있다. 찰방(察訪)이 관장하는 본도의 속역이 14개인데, 단월(丹月) · 인산(仁山) · 감원(坎原) · 신평(新豐) · 안부(安富) · 가흥(嘉興) · 용안(用安) · 황강(黃江) · 수산(壽山) · 장림(長林) · 영천(靈泉) · 오사(吾賜) · 천남(泉南) · 안음(安陰)이다. ○ 찰방 한 사람이다.	在縣北五里。察訪，文九品吏，五十名。知印二十名，使令六名，奴一百五十五名，婢九十四名，大馬三匹，騎馬四匹，卜馬七匹。	충주목 연원도 본역

들을 곳도 많고 길도 멀다.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청풍의 안음역과 황강역은 수몰되었기 때문에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죽령을 경계로 연원도와 창락도가 연결된다. 그리고 영춘현의 오사역은 오사리에 있었지만, 『여지도서』에는 어상천면 임현(任縣)으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출발하여 동서고속도로를 달릴 때 비가 내렸지만, 단양의 영천역에 도착했을 때 날이 개면서 답사가 끝날 때까지 괜찮았다.

영천역(靈泉驛)

영천역은 예전에 단양군과 제천현을 연결하는 역로 중간에 위치했던 역이다. 영천역(靈泉驛)으로 표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令泉驛’으로 표기한 예도 있다.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가 영천역이 있던 곳이다. 앞서 세 번 들렀던 곳으로 100년 전에 지적원도에 구현된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영천역의 특징이라면 갑산(甲山)에서 시작되는 영천(靈川)이 마을을 둘로 가르며 흐르는데 넓지 않은 개울이지만 작은 다리가 열 개 이상 놓였다는 점이다. 개울 오른쪽을 갈번지[楸坪]로, 개울 왼쪽을 골말[谷洞]로 부른다.

영천리 경로당 옆에 주차하고 영천리 마을 자랑비를 세운 오래된 느티나무 옆에서 영천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했다. 『여지도서』에 영천역에는 기마 1필, 짐말 6필이 있었고, 남종 9명과 여종 6명이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짐말이 많은 점에서 세곡 수송 등 짐을 옮기는 상황에서 주요하게 기능했던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느티나무 옆에 있는 다리를 건너 갈번지 마을길을 따라 걸으며 영천역 자리를 둘러보았다. 갈번지는 역 종사자와 길손이 머물던 곳으로, 골말은 말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한다. 전날 비가 내려서 조금 쌀쌀한 날씨지만, 영천에 물이 불어서 여러 개 놓인 다리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던 배추 파동 뉴스와 관련하여 실하게 속이 차고 있는 김장 배추를 보며 ‘저거 한 포기 가져 가면 좋겠다!’는 욕심이 발동하기도 했다. 영춘을 지나면서도 큰 포기의 김장 배추를 볼 때면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영천리에는 국내 최장의 수중 동굴인 영천동굴이 있다. 2017년 5월 12일에 충청북도 기념물 164호로 지정되었고, 올 2월 14일에는 충청북도 자연유산으로 변경되었다. 국내 석회석 주산지인 단양군에는 고수동굴을 비롯해 관광지로 개발된 석회동굴이 여럿 있다. 영천동굴은 관광지로 개방된 곳은 아니다. 이 마을은 과거에 역마장이었지만, 2011년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개발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곳이다. 그 사연을 담은 김귀녀 부녀회장에 대한 공적비가 마을비 옆에 나란히 서 있다.



단양 영천리 마을비 앞



단양 영천리 영천과 다리

오사역(吾賜驛) 또는 임현역(任縣驛)

오사역은 과거 영춘현에 있던 역이다. 임진 · 병자호란 이후에 어상천면 임현리로 이전하였다. 오사역의 위치를 찾으려고 영춘에 몇 번 들렀었지만, 임현리로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어상천면 임현리로 향했다. 영천역을 나와 매포읍으로 향하다가 1km쯤에서 왼쪽으로 영천3길을 따라 임현리에 도착했다. 어상천(於上川)은 예전에 영춘현에 속한 소(所)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곳이다.

어상천 현청의 운을 차운하여(次於上川縣廳韻)

세상일 분분하게 몇 번이나 변했는데
문 앞에 흐르는 물은 예나지나 소리내네
작은 집 적막한데 친구 찾는 꾀꼬리가
백번 울며 은근히 길손의 시름 위로하네

世事紛紛幾變更
門前溪水古今聲
小軒寂寞鶯求友
百轉慇懃慰客情

- 이해(李滄, 1496~1550), 『온계일고(溫溪逸稿)』 권1, 시.

1549년에 공청도 관찰사로서 어상천을 찾았던 이해의 시에는 현청 문 앞에 흐르는 물소리와 친구 찾아
올어 짓히는 꾀꼬리 소리만 들린다. 영춘에서 어상천으로 옮겼다는 임현리에 처음 들른 내게도 비 갠 뒤의
말간 가을 풍경과 산골 마을의 고즈넉함이 느껴졌다. 삼거리 주유소 부근에 차를 세우고 어느 집 처마 밑에
임현리 지적원도와 영춘현 고지도를 펼치고 공간을 살펴보았다. 국유지로 표시된 지번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곧 임현리로 옮겼던 오사역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단양 어상천 임현리 마을길



단양 어상천 임현리 고지도 확인

영춘에서 어상천으로 옮겨온 오사역은 『여지도서』에 중등마 1필, 하등마 1필, 남종 4명과 여종 3명이
있다고 하였는데, 규모가 작은 역이었다. 영춘과 제천을 연결하던 길목에 위치하며 기능했던 역이다. 크지
않은 마을을 걸으며 어상천으로 옮긴 오사역 공간을 둘러봤다.

임현리를 나오면서 동네 어귀에 있는 서낭당 숲에 잠시 들렀다. 금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서낭제를

지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100년 전의 지적원도에는 마을 양쪽 입구에 사사지(寺社地)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남쪽 서낭당이 있던 곳이다. 임현리로 옮긴 오사역 덕분에 생에 첫 어상천 방문은 이렇게
끝났다.



단양 어상천 임현리 지적원도에서 성황당 확인



단양 어상천 임현리 남쪽 서낭숲

영춘(永春)

길이 멀다 보니 영춘에 도착했을 때 벌써 12시가 지났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짜장면집을 뒤로하고 다른
곳에서 짜장과와 짬뽕으로 나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곧장 영춘향교에 들렀다. 향교는 의풍으로
가는 길에 야트막한 언덕에 올라 왼쪽에 있다. 잠시 둘러서 구경하며 예전에 입구의 홍살문을 받치고 있던
거북이 두 마리를 보았다. 넉넉하지 않았던 영춘현의 살림만큼 향교 역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거북이의 표정에 새겨놓은 웃음이 인상적인 곳이다. 근처에 옛날 영춘 관아에 있었던 사의루(四宜樓)에도
잠시 둘러서 영춘 전경을 보았다.



영춘 향교 돌거북

예전에 영춘에 들렀던 이들이 남긴 시 중에 북벽(北壁)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북벽은 예전 오사역이 있던
오사리를 휘돌아 흐르던 남한강의 한 부분이다. 특별히
그곳을 금강(錦江)이라고 하였고, 병풍처럼 두른 절벽을
구경하고 남긴 시가 많다. 또한 그곳에는 느릅나무와
느티나무 고목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서낭숲이 있는데, 몇 년
사이 나무를 훼손하여 볼품없어졌다.

북벽(北壁)

강가에 푸른 절벽이 둘러 서 있는 것이 마치 몇 겹의 병풍 같다. 영춘 읍치의 북쪽에 있다.
江上蒼壁周立如幾疊屏風在永春邑治之北.

강 가운데 절벽이 비치고 석양 밝은데	江心倒壁夕陽明
운모 장식 병풍 펼쳐있어 그림 생각 이는구나	雲母屏開畫意生
봉래산에 갇은 약초 있다고 하나	縱道蓬萊諸藥在
돛단배로 요성에 이르지 못하였네	風檣不得到瑤城

절벽 위에 신령한 약초가 많이 난다고 한다. 그러나 하필 큰 바람을 만나 배를 타고 그 아래에 정박할 수 없었다.
壁上多產神草云.適值大風不得乘舟泊於其下.

- 김윤식(金允植, 1835~1922), 『운양집(雲養集)』 권1, 시. 습유만음(濕遊漫吟)



단양 영춘 북벽

소수서원(紹修書院)과 창락역(昌樂驛)

영춘향교를 나와 935번 지방도를 따라 의풍을 지나 베틀재를 넘었다. 이제부터는 경상도이다. 오른쪽으로 거대한 소백산 줄기를 옆에 두고 계속 달렸다. 가는 길에 여우 로드킬 주의를 알리는 도로표지판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소백산에 토종여우를 방사하여 여우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표지판이다. 월악산에 가면 산양 현수막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창락역을 향해 가다가 소수서원에 들렀다. 소수서원은 1541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周世鵬, 1495 ~1554)이 1542년에 풍기 출신의 성리학자 안향(安珦, 1243~1306)을 배향하기 위해 사당을 설립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543년에 완공하여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우면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1550년(명종 5)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고 쓴 현판이 내려지며 사액서원이 되었다. 우리나라 서원(書院)의 출발점이 된다. 옮겨 놓은 고가와 소수박물관, 소수서원을 둘러보며 지체한 사이 오후 네 시가 넘었다.



베틀재



여우로드킬 주의 표지판



백운동과 소수서원 현판



풍기 창락1리 마을회관

백운동에서 경유(주세붕)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白雲洞次景遊先生)

바람 소리에 구름 흩어져 물 공연히 서글퍼도	風聲雲散水空悲
천년의 정신적인 교분으로 만날 기약있었네	千載神交會有期
하늘이 사문 버리지 않았음을 비로소 만나니	始信斯文天未喪
흰 구름 깊은 곳에서 선사를 뵈었다네	白雲深處拜先師

- 황준량(黃俊良, 1517~1563), 『금계집(錦溪集)』 외집 권3, 시.

조선 시대 유자(儒者)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백운동서원을 뒤로 하고 도착한 창락역!

창락역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에 있던 역이다. 죽령을 경계로 연원도와 연결되는 창락도의 본역인데,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역과 관련된 아무 표시도 없었다. 이번에 들렀을 때는 벽화 사업을 통해 역과 관련된 이미지를 그려놓아서 창락역이 있었던 마을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창락역은 창락1리를 중심으로 있었다. 창락1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길을 사이에 두고 창락역이 위치했었다.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역승을 위시한 역무 관련 인원과 숙소 등이 배치되었을 것이고, 길 건너에는 마방이 위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창락2리는 지적원도에 대사동(大寺洞)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유곡역이나 안보역과 유사한 마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사동에는 ‘유석사(留石寺)’라는 고찰이 있다.

창락역에는 대마 2필, 중마 5필, 짐말 9필과 역리 53명, 남종 22명, 여종 11명이 있었던 규모가 큰 역이었다.

창락역을 지나며(過昌樂驛)

아침 해가 몇 장대 솟아 산촌을 비추는데

幾竿朝日照山村

황량한 옛 역은 문도 닫지 않았네

古驛荒涼不掩門

흰 구름에 골이 막혀 있는 곳도 모르는데

洞鎖白雲迷處所

흐르는 물 따라 선원을 찾으려 하네

欲隨流水覓仙源

- 구봉령(具鳳齡, 1526~1586), 『백담집(栢潭集)』 권2, 칠언절구.

구봉령이 창락역을 지나며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시에는 창락도의 본역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자연에 묻혀 있어서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한 마을이었다. 지금은 옛 역로를 대신한 고속도로가 이용되므로 어느 시골 마을처럼 이름만 간직한 채 자리하고 있다.

창락1리와 2리를 한바퀴 걸으며 창락역과 대사동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 짧은 가을 해는 저녁이 다 되었다. 죽령을 넘을 계획이었지만 포기하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곧장 충주로 방향을 잡고 돌아왔다.

3월 일정에 들렀던 단양의 장림역과 청풍의 수산역을 거쳐서 올 계획이었지만, 하루 일정으로는 아무래도 무리였다.



풍기 창락리 지적원도



풍기 창락리 벽화

연원역(連原驛)

지난 7개월간 각 방면으로 나눠서 답사했던 <연원도 따라가기>의 구심점이었던 연원역을 정리하는 것으로 전체를 마무리한다.

연원역은 충주시 연수동에 있었던 연원도의 본역이다. 연수동주민자치센터 앞에 연원역에 대한 비석이 있다. 본래 연원 마을에 세웠던 것인데 옮겨 놓았다. 현재 연원역이 있던 마을은 사방이 개발되어 아파트숲 가운데에 섬처럼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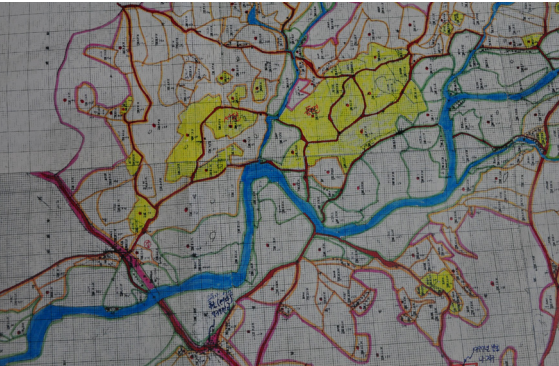
본래 이 마을은 연원역이 중심이 되었던 역마을이다. 마을 중간에 흐르던 골짜기 물을 경계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동편 마을에는 찰방을 위시한 관리들의 공간이었으며, 서편 마을은 말과 관련된 공간이었다. 연원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로 1851년의 연원역 중기(重記)와 해유문서(解由文書)가 문경 옛길박물관에서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중기에는 찰방이 근무하던 동헌(東軒) 외에 이소(吏所) · 형적소(形籍所) · 병방소(兵房所) · 공방소(工房所) · 관청(官廳) · 보방청(補防廳) · 급량청(給糧廳) · 별보청(別補廳) · 본급량청(本給糧廳) · 통인방(通引房) · 호방소(戶房所) 등의 기구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해유문서에는 주요 건물의 규모를 적고 있다. ‘官察 瓦家 三十間, 庫舍 瓦家 十二間, 馬厰 瓦家 九間,

作廳 瓦家 六間, 門間 瓦家 三間’ 등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중기의 ‘공방소’에는, ‘東軒房 貳間, 大廳 肆間, 壁藏門 肆隻, 退 伍間, 通人房 壹間, 抹樓 壹間, 窓門 拾肆隻, 竈 半間, 挾門 貳隻, 懸板 參, 形籍藏樓 半間, 蓮亭房 貳間, 門 肆隻, 使令房 參間, 懸板 伍, 馬廐 壹間, 下人廳 拾伍間, 官廳 玖間, 補房廳 壹間, 庫舍 肆間, 抹樓 壹間, 大門 參間, 中門 壹間, 刑房廳 參間, 大爐 壹, 溺綱 壹 (無), 藥臼 壹 (無), 鍊鉄 壹 (無), 紙砧石 壹, 刑板 壹, 筆硯 壹, 衣巨里 壹, 障子 壹, 燭籠 壹雙破 破件, 鋪陳 壹破 破件, 雨傘 壹破 破件, 使令 鵲衣 壹雙, 燭臺 壹破 破件, 南草刀 壹 無, 大鉅 壹, 鎖金 玖介, 印信板 壹, 使令鈴 壹雙, 先生案 裏紅袱 壹, 入盛櫃子 壹, 馬房 拾肆間, 馬桶 拾間, 馬槽 肆介 無, 大中鼎 各日. 斫刀 壹 無, 補別給補三廳捧錢櫃 壹, 馬板 拾捌介, 紙筒櫃 壹, 小屏風 壹 無, 大枷 貳 着綱 貳, 錢, 法油, 生麻, 山麻, 絲仇里, 油衫, 紅帶, 籠衫丁, 鞍赤 (空), 大月赤 (空), 小月赤 (空)’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물 구조와 규모, 집기, 비품에 관해 기록하고 있어서 세밀한 분석을 통한 복원 내지 모형 제작이 가능하다.

다만, 중기의 ‘이소’ 항목 중에, ‘各等重記及營門重記 準還件 并陸拾卷’을 적고 있다. 1851년에 최소 60권의 연원역 중기가 보관되어 있었지만 현재 확인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과 그중에서도 연원역이 위치했던 충주에는 1건도 없다는 점이 아쉽다.



충주 연수동 연원마을 지적원도



충주 연원역 유래비

연원도는 경기도의 양재도(良才道), 청주 방면의 울봉도(栗峯道), 경북 문경 방면의 유곡도(幽谷道), 경북 영주 방면의 창락도(昌樂道), 강원 원주 방면의 보안도(保安道) 등 각 방면의 역로로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역로를 연원도의 속역과 인접하는 접속역을 확인하며 돌아본 것이 <연원도 따라가기>였다.

2020년에 첫 기획을 하며 한 번 돌아본 길이였다. 이번이 두 번째 길이었는데, 자료를 보강하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흡족하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통한 공감 또는 공유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 

05. 문화 유산 활용현장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의 힘, 다섯

김해숙(신항서원활성화사업단)

지난 호 본 지면(『충북학누리』 제18호(2025 봄))에서는 ‘신항서원 휴休식識시대 7년’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주름을 펼쳐 구체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항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총 다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창작’ ‘연결’ ‘사람’ ‘마을’ ‘공간’, 이 다섯 가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지역문화유산활용사업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가치와도 상당히 부합된다는 점입니다.

창작 - 킬러 콘텐츠 창작으로 고유성과 차별성을 쌓는다

다 알다시피 신항서원은 입지적 조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서원으로 들어오는 마을길도 좁고, 주차장 시설도 완비되어 있지 않고, 대중교통 편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당과 강당 달랑 두 채의 건물 중 실제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강당뿐입니다. 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항서원의 건물 혹은 배향 인물 등 유·무형적 가치조차도 크게 주목받을 만한 게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걸 보고, “킬러콘텐츠로 성공적 사업을 하는 케이스”로 좋게 평가해 주더군요.

킬러 콘텐츠란 ‘독창성, 재미, 매력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콘텐츠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항서원의 핵심콘텐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전랩낭송입니다. 이는 서원의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한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을 신봉하던 조선 시대 학교가 바로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서원 공간에서 21세기의 음악 ‘랩’에 ‘고전’을 얹어 21세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고전랩낭송을 익힌다! 이 컨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차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동양의 고전 ‘낭송 논어’를 비롯해 ‘청주판 명심보감’, 배향 인물인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등등이 바로

신항서원에서 창작된 고전랩낭송들입니다.

그러나 신항서원의 창작열은 고전랩낭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첫발자국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젊은 안무가에게 의뢰해 ‘고전랩낭송 바디퍼커션’을 창작했는가 하면, 청소년 뮤지컬을 제작해서 신항서원 큰잔치의 무대에 올렸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좀 대단한 것 같긴 하군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아직 사업액수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런 시도를 한 것 자체가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 지역에서도 문화유산 활용 업계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창작뮤지컬을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지? 대단한 사람들이로군!” 당시 우리 사업단 친구들은 좀 얼떨떨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작업인데 왜 이렇게 과분한 칭찬을 받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그대로를 사업에 적용하고 실험해 봤을 뿐입니다. ‘시경’이란 고전에 ‘풍속을 바꾸려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국풍’은 구절을 그대로 프로그램에 접목했을 뿐입니다.



바디퍼커션1



바디퍼커션2

신항서원의 정체성을 익히기 위해 ‘신항가요’를 창작해 어린이들에게 부르게 했을 뿐이고, 고전을 몸에 새기기 위해 랩낭송과 바디퍼커션을 즐기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한 무대에 모아서 올려 창작뮤지컬을 공연했습니다. 이후 이 창작뮤지컬 공연은 청주 시내 독서문화 잔치 혹은 기록 문화 행사에 자주 초청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음악이 새로운 풍속을 만들어 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독특하고 차별성 있고 고유한 신항서원의 시그니처가 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후 신항서원에서는 해마다 고전랩낭송을 두 곡씩 창작해오고 있고, 지역 시인이 선물로 주신 ‘신항서원’ 시에 맞추어 퓨전국악 풍의 신항서원 노래도 창작했습니다. 매 프로그램 진행시 이 노래들은

신항서원 정원에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 올해 2025년에는 ‘신항서원 창작 마당극’을 준비하고 있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시민 배우로서 맹연습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창작된 고전랩낭송을 모아 ‘낭송활용집’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신항서원의 킬러콘텐츠가 되고 있는 셈이지요.



청소년 뮤지컬

연결 - 경계를 넘어서야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된다

신항서원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연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문화유산 활용사업들은 국가유산청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유산청의 사업비를 받아 국가유산 활용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수행단체의 특성대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역사체험 단체에서는 교구 제작과 체험으로, 예술 단체에서는 공연과 전통 예술 체험으로, 그렇게 수행단체의 특장점을 활용해 주된 사업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사업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주 지역에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인문학과 교육이란 정체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하여 그동안

청주 지역 도서관 등 평생 교육 기관과 맺어놓은 인연들이 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신항서원이라는 옛 교육기관과 현대의 평생 교육 기관을 어떻게든 연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 위의 인문학’, ‘독서아카데미’, ‘생활인문기획자 양성’, ‘충북문화재단’ 등 타 사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신항서원’을 알려나가고자 했습니다. 주어진 국가유산청의 예산과 계획에 머물기에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신항서원’의 인지도가 너무 낮았다는 게 추동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신항서원 어린이*청소년 랩낭송단이 청주 지역의 행사에서 여는 공연으로 불려나가는 것’이 우리 사업단의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인연은 인연을 불러오고, 사업은 또 다른 사업과 연결되는 게 세상 이치인가 봅니다.

2019년 청주에서 전국독서대전이 열렸을 때, ‘고전낭송 페스티벌’이란 큰 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미리 보내온 동영상으로 예선 심사를 하면서도 우리의 걱정은 매우 컸습니다. 본선 행사 때 고인쇄박물관 세미나 실 350석을 어떻게 채우지? 우리의 능력에 벅찬 행사를 맡은 거 아냐? 등등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 당일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인쇄박물관 창사 이래 가장 많은 관객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주 시립도서관, 고인쇄박물관 모두 싱글벙글했고, 우리 신항서원은 기적이 아닌가 싶을 만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후 신항서원은 청주시의 주요 행사에 ‘낭송 부스’가 자주 출장을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 예술단의 개막 공연 혹은 이정골 다드미*풍물단의 시민 공연 무대에 종종 서고 있습니다. 청주시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낭송 삼 시 세 끼>라는 낭송스테이를 만들어 전국에서 찾아가 하면, <찾아가는 계개당> <신항인문버스> 등으로 제주와 강진 등의 타 지역과의 연계 사업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신항서원의 강당 <계개당繼開堂>이란 이름을 소개해 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연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을 繼, 열 開, 전통을 ‘이어’ 다음(다른) 세계로 ‘열어간다’는 뜻이지요. 성리학이 자연학이란 관점, 우주의 연결 체계 안에서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다분히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청주의 강원도라 불리는 궁벽한 시골 변두리에 있고, 대단히 유서 깊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일반적 시각으로 볼 때), 신항서원이 가까운 청주로부터 멀리 다른 지역까지 연결되기란 참으로 까마득했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람 - 사람이 성장해야 사업도 성장한다.

내친김에 신항서원莘巷書院의 이름 유래도 살펴볼까요?莘은 족두리풀 신희입니다. 중국의 명재상 이윤이 족두리풀이 나는 궁벽하고 거친 시골莘野 출신이란 뜻이고, 학문 천하제일 안연이 누항陋巷이라는 누추한 골목 출신이란 뜻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한 마디로 이 서원에서 학문을 연마하여 명재상 이윤과 학문제일 안회처럼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신항서원은 명실공히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의 교육은 저 혼자 능력을 길러 출세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게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리학이란 ‘저마다의 본성대로 이 세계에서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런 道를 살다 간 사람들을 배향하는 곳이 사당社堂의 역할이며, 그래서 서원에는 반드시 사당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가치를 같은 차원에서 보는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서원의 주요 기관이 바로 사당입니다. 신항서원에도 구현사九賢社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신항서원 문화유산활용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직업인으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과 배운 것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활동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 서원의 정체성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찾아낸 개념이 덕업일치德業一致입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활동’을 하자라는 뜻. 한 마디로 자기 좋아하는 덕질(德)과 생업(業)을 일치시키는 것을 삶의 방향성으로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신항서원의 성인학당-철학교실, 낭송과 필사교실, 주역교실, 명상산책, 소학실천학교 등등-은 모두 이런 덕업일치의 맥락에서 구성된 프로그램들입니다. 물론 어린이 학당-낭송과 마을, 환경생태, 한자풍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덕업일치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은 것일까요? 배운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성장은 모든 생명체가 꿈꾸는 생명활동입니다. 우리는 생의 전반에서 성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과 보수에 매달려 일에 매몰되기는 싫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공부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 지행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장’이란 정신적*물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이니 어찌 보면 ‘성숙’이라고 불러야 더 마땅할 듯도 싶습니다만.



부모학교



물멍 저수지멍



명상

여기서 신항서원만의 독특한 사례 하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신항서원에서 주말마다 어린이 학교가 열립니다. 매주 2-30명 어린이들이 참여합니다. 교통편 등 여러 문제로 거의 대부분이 부모 동반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학교를 만든 게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일단 부모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간식을 만들어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마을에 아동요리 전문가가 이사해 와서 재빨리 마을교사로 모셨습니다. 이는 요즘 젊은 엄마아빠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녀 간식을 만들어주는 한편 전통 간식 계절 음식 등의 요리법을 배워가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부모 인문학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 철학과 신항서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마련하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다음 프로그램의 홍보요원이 바로 부모학교 출신자들이면서 몇 년 후 신항서원 활동가가 되는 큰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문화유산 활동가 양성과정이 필요함을 느껴 자체 양성과정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강사과정 개설을 건의하여 협업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활용사업의 중요 권장 사항입니다. 만사가 인사이자, 결국 사람들과의 협업과 연결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양성이 과정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예술문화인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단 신항서원의 정체성과 예술과의 접목을 위해 신항서원과 밀접한 관계 형성 즉 라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게 고민 지점입니다. 사업 규모 한계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의 성장과 사람의 성장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만큼은 잊지 않으려 합니다.

마을 - 마을을 품어야 문화유산도 힘이 생긴다

문화유산활용사업에서 마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은 말이 없고, 선거를 할 표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고립무원의 일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특성을 잘 살피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 방편으로 80-90 대 할머니들에게서 마을 이야기를 구술 작업해서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첫 해에 ‘생활인문 협업 활동’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때 저자인

할머니들은 지금도 어린이들에게 마을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저희 사업단 친구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지식문화산업 위주였던 활동에 어느새 평생 책과는 담 쌓고 살아왔던 일반 시민 특히 마을 주민들과의 연결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자로 이해하는 세상은 어쩌면 극히 일부분이자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책상물림인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때 마을 사람들의 특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항서원이 있는 이정골은 전통적인 산골 마을의 특성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골처럼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익숙한 다드미 방망이를 쥐어주고, 60-70 시니어들에게 풍물을 들게 하자, 마을은 갑자기 활기가 넘쳐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항서원*이정골에서는 해마다 이정골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날 시원한 경로당에서 모여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을 모아 연말 이정골 달력을 제작하여 마을 주민과 타지의 자녀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큼직하고, 음력 날짜도 병기하여 노인 세대의 생활 달력으로 쓰임새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골 가족사진



이정골 그림 달력

한편으로 우리 사업단도 포기하지 않을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친환경 농사와 1회용품 없는 잔치, 이것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서원에서 친환경으로 지은 농산물이 더 맛있고 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을 쓰지 않고도 몇 백 명 규모의 잔치를 치를 수 있음을 실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농사법은 여전히 실험 중에 있습니다만, 후자는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종이컵 대신 스텐 컵을 삶아서 쓰면서 시니어들의 자부심 뽐뿌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서원에서 활동하면서 배운 것이 많다는 소감들이 곧 자신이 성장일로에 있다는 말로 들려서 오히려 우리가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문화유산 활용사업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프로그램에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이정골 마을 풍물단

공간 - 공간의 변화가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최종 심금

햇수로 7년, 신항서원활성화사업단의 활동 시간입니다. 7년여의 시간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왕초보 생초보였던 문화유산 활동가들이 매주 보따리 바리바리 들고 서원으로 와서 수업을 하던 그 불편한 시절이 꿈만 같습니다. 햇수로 만 3년 전 서원 고직사로 우리의 공부터가 입주했던 것도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정골의 시그니처인 마을 밥상뿐만 아니라 산골 김장, 장 학교, 전통 술 학교 등이 기획된 것이 모두 마을로 들어온 덕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간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할 수 있는 기획도 더 깊어지고 풍부해졌습니다. 아울러 마을 주민의 참여도 더 많아지고, 그만큼 시니어들의 일거리도 늘어났고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들이 열리고 훈훈해졌다는 건 2-3년 전부터 들려오던 말이었는데, 실제 보이는 부분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먼저 도시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명상길, 숲 산책로가 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신항서원 주변 소나무 숲길을 걷는 묵언 산책, 산책길 한 쪽 그윽한 숲 공터에서의 숲 명상. 산책길 끝자락 이정골 방죽에서의 물멍, 바람멍....

자연 공간의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청주시에서 대형 표지판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가 하면, 마을회관 건물 임대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몸치유 연구소, 싱잉볼 연습실, 게스트 하우스를 곧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이정골 마을 기록관을 만들어 2026년부터 마을 아카이빙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간은 이렇게 다른 상상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밖에도 신항서원 주차장, 경로당 도서관 사업.... 등 논의 중인 공간 전환 사업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앗, 그런데 국가유산청의 또 다른 방향성에 공간의 변화도 크게 한몫하고 있네요. 말없는 문화유산이 사람들의 정신문화에도 변화를 주지만, 콘텐츠가 하드웨어를 바꿔내는 것 또한 대단한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신항서원 활성화 사업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마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꿔낸다는 것. 공간 변화는 그래서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최종심금이 됩니다.

지금 공간의 변화가 곧 다음의 문화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06. 충북학연구소 소식

■ 제23차 한국지역학포럼, “로컬리즘과 지역의 현재, 그리고 미래”

4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안동에서 제23차 한국지역학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와 (사)한국지역학포럼의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로컬리즘(Localism)과 지역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8일(금)에는 개회식과 함께 ‘소외의 공간, 문화의 공간이 되다’, ‘인공지능 지역학과 지역 AI 구축’, ‘서울지역조사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의 발표가 제1부에서 진행되었다. 제2부에서는 지역 생태 자원과 로컬리즘을 활용한 관광모델,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 역사문화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19일(토)에는 안동시에서 도산서원 답사 및 선비문화 체험이 이루어졌으며, 퇴계종택 방문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한국지역학포럼은 전국 25개 이상의 지역학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충북학연구소도 한국지역학포럼의 회원으로 매년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학 담론 형성과 연구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4차 한국지역학포럼은 2025년 10월에 경기도 여주에서, 제25차 한국지역학포럼은 2026년 상반기에 충북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충청북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25-4 개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6월 25일(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25-4’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류 최악의 재앙, 기후 위기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란 주제로,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김완구 교수의 강연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완구 교수는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재앙이며, 과학기술적 해결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인간의 일상적인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철학적 성찰과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및 사회적 혼란 ▲‘기후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영향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차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 2025년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공동주관 및 세션 참가

7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충북학연구소,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충북연구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의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주관한다.

충북학연구소는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으로 제14세션인 ‘충북지역단체 자유 세션’을 담당한다. 7월 4일(금)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보현 교수가 “호수는 충북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호수관광 정책을 위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성보현 교수는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정부의 ‘호수, 가람 광역 관광권’ 구상을 언급하며, 호수를 중심으로 한 관광정책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제약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호수 대부분이 농업용 인공저수지라는 점에서 관광자원으로서의 자연성과 문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수관광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자연경관 개발을 넘어서 ‘사람과 문화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몰로 인한 문화유산의 상실과 복원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수위 변동 문제 ▲대청호와 충주호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등의 내용을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AI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The 4th 2025 World Humanities Social Science Congress:
The Convergence of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I Era

| 일 시 | 2025. 7. 3. | 목 | ~ 7. 4. | 금 | 2일간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주 최 |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NII(한국인문사회학회) 인문사회융합성과혁신센터

| 주 관 |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강원대학교 태동고학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충북연구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포럼, 충북과학기술혁신센터, 충북대 프로그래밍센터,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한국과학 충북지역연합회,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에너지과학기술원, 충청대 반도체사업연구소

| 후 원 | 교육부, 충청북도,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원대학교

주요대외일정			
날 짜	시 간	장 소	내 용
7월 3일 (목)	10:00~16:00	교육연구원	1일차 발표 세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실용화발표 문헌
			개회식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회, 장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한국연구재단총장상과학술선배의장
	16:20~16:40	교양학관	축 사 사회부총리및 교육부 장관,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충북도교육감, 한국교원대총장,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 KERIS원장 등
	16:40~18:00		충북도지사 특강 (16:40~17:20) 문화예술공연 (17:20~18:00)
	18:00~20:00	학술회관	만찬

발제 이후에는 전 청주대학교 김양식 교수와 청주대학교 임승빈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여 충청북도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관련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북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3
홈페이지 <http://csi.cri.re.kr>